

## 放送 言語의 諸問題

### -發音의 混亂相

許 椿\*

#### 목 차

- I. 서론
  - II. 구체적 사례
    - 1. 받침
    - 2. 모음
    - 3. 동화
    - 4. 첨가
  - III. 결론-관심을 촉구하며
- 참고문헌

### I. 서론

‘술 떼어 놓고 삼 년’이라더니 퍼벌한 자료 쪽지들만 쌓아 놓고 다른 작업에 바빴는데, 이 글을 써야 할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다.

연전에 어떤 가수(메조 소프라노)가 가곡(김소월 시 ‘진달래꽃’) 발표를 하였는데, “사뿐히 즈려 밟고[발:꼬] ---” 하며 불렀다. 더 큰 문제는 이 노래를 티브이(TV)에서 방영한 점에 있다. 틀린 발음을 널리 전파한 셈이 되었다. 노래를 하는 데는 외국어 덕션(diction)-음악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이다.-에 앞서 우리말의 바른 발음을 먼저 공부해야 함을 절실히 보여준다. 음주 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 광고(1998.10.)에서는, 맥주병이 가속기를 밟는 장면이 나오자, 해설자(내레이터(narrator))가 “당신은 지금 생명을 밟고[발꼬] 있습니다.” 하고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외쳤다. 지금은 '뱃고'를 '[밥:꼬]'로 정확히 발음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은 듯하다.

언론 매체의 우리말글은 국민들의 언어 생활을 좌우한다. 강단이나 서책을 통해 백 번 외쳐도 방송-특히 TV에서 한마디 하면 그것으로 고정된다. '고수부지'를 '둔치'로 순화하자고 해도 잘 되지 않았지만,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쓰자 이제 '둔치'가 많이 보급된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국민들은 대체로 신문의 표기, 아나운서(announcer)나 성우의 발음, TV의 자막 등을 의심 없이 믿는 경향이 있다. 드라마(drama)나 코미디(comedy)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program)은 그 영향이 더더욱 지대하다. 좋은 교사가-우리말 발음에 정통한 교사는 매우 적은 실정이지만-아무리 정확히 가르쳐도 아나운서나 연예인 한 사람이 틀리게 해 버리면 그것으로 굳어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금의 언론 매체는 용어, 발음, 표기법, 외래어, 문장 부호, 문장 등 여러 면에서 우리말글을 醇化하기는커녕 오히려 惡化를 선도한다고까지 할 만한 상황이다. 우리말글의 왜곡과 변형은 컴퓨터(computer) 보급에 따른 채팅(chatting)의 영향도 있겠지만, 인터넷(internet)을 이용한 패러디(parody) 신문의 출현도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방송의 바른 발음은 곧 보도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데, 우리말을 바르게 쓰지 못하는 정도가 너무 심한 상황이다. 방송에 한 해 보면, 갈수록 연예인 같은, 언어 훈련을 받지 못한 비전문인들의 출연 비중이 높아져 가는 탓도 있을 것이다. 전문 방송인보다 연예인의 말버릇이 언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크니 더 걱정스럽다. 이들이 언중-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데, 이 점은 작가나 피디(PD)와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따라서 연예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이들이 출연하는 드라마도 일부 포함하였다. 지역 특유의 발음을 교정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대로 전국 방송에 출연하는 방송 종사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각 성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그 구체적인 예를 적시할 것이니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혹자는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이 어려운 탓이 아니고 관심이

부족한 탓이라 하며 언중을 나무라기도 한다.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수십 년 우리말글에 관심을 가져온 필자가 보기에는 우리말글의 규정이 모호하고 허술하며 기준이 될 만한 사전도 마땅치 않으니, 우리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발음은 더욱 심해서 우리에게 표준 발음의 척도로 삼을 만한 것이 있는지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표준 발음법'과 현실음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발음 표기는 사전마다 서로 다른 실정이다. 바른 우리말 발음 정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아니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1993년에 한국방송공사(KBS)에서 「표준 한국어발음대사전」(이하 「KBS」)을 펴냈으나 여타의 사전과 다르거나 '표준 발음법'에 어긋나는 발음도 많고, 방송인들도 별로 지키지 않는 듯하다. NHK(일본)나 BBC(영국) 같은 위상을 KBS가 가지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노근리 사건' 보도에서 보인 발음의 혼란상([노근리], [노글리], [노근니] 등)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억양은 너무恣意的이고 심지어 파괴적인 실정이라서 일일이 예거할 수 없을 지경이다. 전파력과 호소력이 막대한, 공익 광고를 위시한 각종 광고나 캠페인(campaign)의 발음 또한 시정이 시급하다. 성우의 틀린 발음과 공익 광고의 오류는 놀라운 일이다. 전문가인 성우나 아나운서까지 틀리게 발음하면 문제는 꽤 심각해진다.

이러한 상황은 실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론적인 논의는 깊게 하지 않겠다. 언론 매체를 주의 깊게 보고 듣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방송 언어 점검은 신문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발음에 이견이 적지 않고, 표준으로 삼을 만한 발음 사전도 마땅찮다. 그래서인지 우리말 발음에 대한 논문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필자는 우선 방송 언어의 여러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성과 관심을 촉구하고, 발음 규정의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하려 한다. 보여도 들려도 피로운, 우리말글의 혼돈 상태를 점검하는 첫 단계로, 이 글에서는 먼저 발음의 혼란상을 제시하겠다. 정서법이나 문장(어휘)보다 관심이 덜한 분야가 바로 발음법이기 때문이다. 문학을 전공하는 필자가 이 일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20여 년간 언론 매체에 관심을 가지

고 본 결과, 이제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아울러 이론 논의에만 매달려 실제-특히 음성 언어-에 무관심한 이들과 언론 종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이다.

어떤 일이든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틀렸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틀린 말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공중파 방송을 대상으로 했는데, 특정 방송이나 특정 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중요도와 무관하고 순전히 필자의 개인 사정 때문이다. 제주 지역의 예가 많은 것도 그렇다. 특히 라디오의 청소년 대상 심야 프로그램은 진행자나 초대 출연자의 언어 구사에 문제가 많으나, 자세히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프로그램이 연속되므로 자정이 넘은 경우도 방송 날짜 표시는 다음날로 하지 않았다. 제한된 지면 관계로, 連音, 경음화, 우리말의 고저, 장단, 억양, 속도, 외래어, 외(국)래어+우리말, 잘못된 어휘 사용에 따른 발음 등의 혼란상은 별고에서 논하겠다.

접자음, 경음, 모음 등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며 어중간하게 발음한 것은 틀린 것으로 간주하여 지적하고 그 상황을 부기하였다. 필자 나름대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만의 하나라도 필자가 스쳐 들은 게 있을까 조심스럽다. 그러나 (시)청자(필자) 귀에 그렇게 들렸으면 그 자신이 어떻게 의도하고 발음했나 하는 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실수라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조사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다 들 수는 없고 극히 일부만 보였으나, 많이 틀리는 말은 그만큼 많은 예를 들었다. 실명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채널(channel), 날짜, 프로그램, 방송 지역(지역일 경우)과 함께, 확인한 경우, 성의 첫 자음과 직업을 표시하였고, 성명 미확인시나 필요시에는 성별을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든 것은 경각심을 촉구하는 뜻이다. 번거로움을 피해 방송 시간은 가능한 한 생략하였으나 필요시 10분 단위로 표시하였다.

발음 표기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국제음성기호나 음운 표기를 하지 않고 () 속에 한글로 적었다. 되도록 최근 2~3년간의 예를 들되, 1988년 이전의 예는, 지금도 규정에 변동이 없으면서 틀린 말을 보일 필요가 있을 때만 간혹 보였다. 이 중 1980년에 조사한 것은 2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일 것이다. 혼

동하기 쉽거나 논란이 있는 경우는 바른 발음을 따로 제시하였다.

## II. 구체적 사례

### 1. 받침

#### 1) 겹받침

우리말 발음 중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아마 겹받침일 것이다. 한시도 편하게 방송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오류가 많다. '표준 발음법'(제 4장)에는 겹받침의 발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실정은 '규정 따로 말 따로, 사전 따로 말 따로'이다.

서술의 편의상 '표준 발음법'의 해당 규정을 보인다.

제10항 겹받침 'ㄴ', 'ㄴ', 'ㄹ', 'ㄹ', 'ㄹ', 'ㄴ'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ㄴ]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과]	얏다[안따]	여넋[여넉]
넋다[넉따]	외곶[외골]	핥다[할따]	값[갑]
없다[업:따]			

다만, '밭-'은 자음 앞에서 [밭]으로 발음하고, '넋-'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넉]으로 발음한다.

- (1) 밭다[밭:따]                      밭소[밭:쏘]                      밭지[밭:찌]  
 밭는[밭:는 → 밭:는]              밭게[밭:게]                      밭고[밭:꼬]
- (2) 넋-죽하다[넉죽하다]                      넋-등글다[넉등글다]

제11항 겹받침 'ㄹ', 'ㄹ',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ㄹ, ㄹ]으로 발음한다.

닭[닥]	훈과[훈과]	막다[막따]	늑지[늑찌]
삼[삼:]	젖다[젖:따]	울고[울꼬]	올다[올따]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맑게[말게]	물고[물꼬]	얼거나[얼꺼나]
--------	--------	----------

① (젓)밭다:넋다(넉따), 외곶(외골), 핥다(할따)처럼 'ㄹ', 'ㄹ', 'ㄹ'

은 원칙적으로 [ㄹ]로 발음하지만, '밟다[밥:따], 짓밟다[진빡따],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뚱글다]' 등은 예외이다. '밟다[밥:따]'는, '밟으면[발브면]'처럼 단음절인 어간('밟')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는 짧게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7항-이하 항 표시만 함). 너무나 많이들 틀려 다 들 수는 없고, 최근 사례 중 일부만 예시 하겠다. 장단음에 대한 인식 또한 거의 없는 듯하다.

"— 석사·박사 과정을 밟고[발꼬] 있는 —"(80.7.31.08:10 DBS R1) 뉴스 ㄹ 기자)

"— 그룹 통·폐합 절차를 밟게[발께]될 것—"(97.11.4.13:00 MBC R 뉴스 ㄹ 아나운서)

"인턴 과정을 밟고[발꼬] 있는 —"(98.5.31. MBC TV '아름다운 TV 얼굴' 진행 ㅂ 텔런트(talent))

"당신은 지금 생명을 밟고[발꼬] 있습니다."(98.10. 음주 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 광고 해설 성우(남))

"또 다른 매각 절차를 밟고[발꼬] 있는 —"(98.12.31. MBC TV '뉴스 데스크' ㄹ 기자)

"말뚱을 밟고[발꼬] —"(99.1.2. MBC TV '코미디 실록' 해설 성우(남))

"(S&P가) 마지막 확인 절차를 밟고[발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99.1.10. MBC TV '뉴스 데스크' ㄹ 기자)

"일단 서면에 의한 소명 절차를 밟기[발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99.1.11. MBC TV '뉴스 데스크' ㄹ 기자)

"가속 페달을 밟지[발찌] 않았는데도 —"(99.7.20. SBS TV '제3취재본부' 진행 ㄹ 기자. 이를 보도한 ㄱ 기자는 [밥:찌]와 [발:찌]를 혼용하였고, 출연한 소비자 보호원 ㄹ 과장은 묘하게도 'ㄹ'과 'ㅂ'을 한꺼번에 발음하였다.)

"브레이크 페달을 확실히 밟고[발:꼬] 시동을 거십시오."(99.8.5. K1TV 급발진 사고 방지를 위한 공익 캠페인 ㅂ 성우. '거십시오'에 대해서는 별론함.)

"뭇 남성들이 그 위를 밟고[발:꼬] 지나가게 —"(99.8.12. MBC TV '한국 100년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해설 ㄹ 성우)

"— 조국 땅을 밟게[발께] 된다."(99.8.15. MBC TV '장준하의 장정 천리' 해설 ㅅ 성우)

"언니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진발꼬] 사라진 용의자."(99.8.18. K2TV

1) 약자나 로마자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편의상 로마자로 줄여서 표기한다. 연도는 뒷부분만 줄여서 표기한다.

- '공개 수배 25시' 진행 ㄴ 기자)  
 "— 한결같이 호주의 전철을 밟지[발:찌] 않을까 —"(99.11.1 K1TV '세계는 지금' 보도 기자(남))  
 "— 상표 등록 절차를 밟고[발:꼬] 있다고 밝혔습니다."(99.11.2. MBC TV '뉴스 데스크' ㅎ 기자)  
 "— 국회 동의 절차를 밟기[발:끼]로 했습니다."(99.12.3. MBC TV '뉴스 데스크' ㅎ 공동 앵커(anchor)(남))  
 "브레이크를 밟게[발:깨] 되어 있어요."(00.1.6. MBC R '지금은 라디오 시대' ㅎ 공동 진행자(남))  
 "푸틴이 민주주의를 짓밟고[짓발꼬] —"(00.3.27. K1TV 뉴스9 ㄱ 러시아 특파원(남))  
 "남의 발 좀 밟지[발:찌] 맙시다."(00.4.4. K1TV '어린이 유치원 하나 둘 셋' 목소리 출연 성우(남), 어린이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할 때 특히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바른 발음이 더욱 절실하다.)  
 "(엎드려 있는 사람의) 등을 밟고[발:꼬] 가셨어요."(00.4.16. MBC TV '스타 레볼루션' 진행 ㅎ 탤런트)  
 "석유 냄새 없는 ㅎ ㅎ, 밟기[발끼]만 해도 신경이 마비되어 —"(00.4.22. TV ㄴ 해충약 선전 성우(남))  
 "— 절차를 밟고[발꼬] 있습니다."(00.4.27.09:30 K1TV 뉴스 ㄴ 기자(남))  
 "— 하나하나 밟고[발꼬] 간다는 —"(00.4.27. K1TV '아침마당' 공동 진행 ㅎ 아나운서(여))  
 "— 파산 절차를 밟게[발:깨] 되었습니다."(00.5.21. MBC TV '뉴스데스크' ㅎ 기자)  
 "— 마음은 항상 고향 땅을 밟고[발꼬] 있습니다."(00.6.10. K1TV 뉴스9 ㅎ 기자)  
 "스텝을 밟고[발꼬] (계셨군요.)"(00.6.28. MBC R '지금은 라디오 시대' ㅎ 공동 진행자(여), 00.7.6. K1TV '현장 르포 제3지대' 해설 ㅎ 성우(남),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성우의 발음에는 오류가 너무 많다. 성우 경력 30년이 넘는 않지만, 이 성우는 '표준 발음법'을 다시 정독했으면 한다.)  
 "— 지뢰를 밟고[발꼬] —"(00.6.28. K1TV 뉴스9 ㅎ 기자(남))  
 "— (복잡한) 장기 이식 절차를 밟다가[발:따가] —"(00.7.2. K1TV 뉴스9 ㅎ 기자)  
 "2루수, 1루 밟고[발꼬] —"(00.7.16.20:50 MBC R 프로 야구 중계 아나운서(남))  
 "— 한 코스를 밟고[발꼬] 나면 —"(00.7.20. K1TV '아침마당' ㅎ 공동 진행자(남))

- “— 내 뒤를 밟고[발:꼬] —”(00.7.21. K1TV 극 ‘민들레’ ㄱ 텔런트 (여))
- “— 밟고[발:꼬] 있었다 이 말여.”(00.8.2. MBC R ‘즐거운 오후 두 시’ ㄹ 공동 진행자(남))
- “— 민주화 요구를 짓밟고[질발:꼬] —”(00.8.6.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설 ㅅ 성우)
- “(자전거 페달을) 밟기[발:끼](도 하고) —”(00.8.21. K1TV 뉴스 ㄷ 기자. 00.10.24. MBC TV ‘PD 수첩’ ㄷ PD)
- “— 빨리 땅을 밟고[발꼬] 싶다는 —”(00.9.13.18:50 SBS TV ‘대한 해협 횡단-20년 전의 약속’ ㄹ 아나운서(남))
- “— 딸만큼은 땃땃하게 이 땅을 밟게[발게] 되기를 —”(00.9.13. K1TV ‘수요 기획’ 해설 ㅅ 아나운서(여))
- “전화를 받는 박명옥 씨의 표정이 밝지[발찌]만은 않다.”(00.9.19. K1TV ‘병원 24시’ 해설 ㄱ 성우)
- “— 내 육체를 짓밟고[짓발꼬] —”(00.9.22. K2TV 극 ‘송화’ 송화 역의 ㄹ 텔런트(여))
- “(박찬호가 17승 고지를) 밟게[발게] 되었습니다.”(00.9.25.09:30 K1TV 뉴스 ㅅ 기자)
- “— 절차를 밟게[발게] 됩니다.”(00.9.26.09:30 K1TV 뉴스 ㅂ 기자)
- “개똥을 다 밟고 —”(00.10.17. K1TV ‘아침 마당’ ㄹ 공동 진행자(남))
- “— 지주회사 편입의 수순을 밟게[발:게] 되었습니다” (00.11.8. K1TV 뉴스9 제주 뉴스 ㄷ 앵커(아나운서, 남). ‘수순(手順)’은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절차’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넓다**: ‘밟다’는 예외적인 것으로, ‘넓다, 좁다’는 ‘[널따], [짤따]’라야 한다(제10항).

“— 영역권은 더욱 넓습니다.”(00.7.17. K2TV ‘맹수의 낙원’ 해설 성우 (남). [넓습니다]에 가깝게 발음했는데 [널씀니다]라야 맞다.)

- ③ **짧다**: “시간이 없으니 짧게[잡게] —”(97.10.27.23:00 제주 K1TV ‘제주 저널(?)’ ㄱ 토론 사회자)
- “— 통학거리가 짧거나[잡거나] —”(98.12.19. MBC TV ‘뉴스 데스크’ 제주 뉴스 ㅅ 앵커)
- “— 시간도 짧게[잡게] 걸립니다.”(99.11.11.09:50 K1TV 뉴스 ㄹ 기자(남). [짤게]라야 하는데, 그나마 [게]는 또 웬일인지 모르겠다.)
- “이렇게 인사말이 짧게[잡:게] 끝내고 —”(00.5.8. K1TV ‘뉴스 라인’ ㄹ 기자. 말이 안 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장단음도 틀렸다.)
- “— 짧게[잡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00.5.9. MBC TV ‘PD 수첩’ (특집) 진행 ㅅ 아나운서)



“— (전화 한 시청자에게) 짧게[잡게] —, — 몇 가지 요구 조건이 있으면 짧게[잡게] —”(00.5.30., 00.9.5. K1TV ‘아침마당’ 〇 공동 진행자(남))

“(장관의) 임기가 짧기는[짧기는] —”(00.7.18. MBC TV ‘PD 수첩’ ㄷ PD. 오랜만에 겹자음을 제대로 발음하는 것을 들었으나, [짧기는] 이라야 한다. 위에 든 여러 예에서 경(경)음보다 평음이 더 품위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소감이 어떠신지 짧게[잡게] 말씀해 주시죠. — 한마디 더 짧게[잡게] 말씀해 보시죠.”(00.7.27., 00.8.3. MBC TV ‘100분 토론’ 〇 사회자. 이 사회자는 ‘짧다’의 발음을 꼭 익혔으면 한다. 아무리 기다려도 고쳐지지 않는다.)

④ **꺠직(꺠직)하다**: 꺠다[꺠따], 꺠다[꺠따], 늣다[늣따], 맑다[막따], 뭍다[뭍따], 밭다[밭따], 읽다[익따], 쫘다[쫘따], 읊다[읊따]처럼 겹받침 ‘리, 리, 리’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ㅋ, ㅍ]으로 발음한다. 다만, ‘맑게[말께], 밭게[밭께]’처럼, 용언의 어간 발음 ‘리’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11항). ‘꺠직하다[꺠찌카다], 꺠직꺠직하다[꺠찌꺠찌카다]’ 또한 마찬가지이다. ‘꺠직꺠직’의 발음은 사전마다 다르나 ([꺠찌꺠찌], [꺠직꺠직], [꺠직꺠직], [꺠-꺠-] 등) [꺠찌꺠찌]이러야 정확하다. 오랜만에 들은 ‘꺠직한[꺠찌칸]’(00.10.14. K1TV 뉴스9 ㄷ(?) 공동 앵커(여)이란 정확한 발음은 참 반가웠다.

“기차는 꺠직꺠직한[꺠찌꺠찌칸] 사건을 뒤로 하고 —”(99.9.26. K1TV ‘네트워크 기획’ (제작:대전 KBS) 해설 ㄱ 성우)

“이번 주는 꺠직한[꺠찌칸] 뉴스가 많은데 —”(99.10.28. K2TV ‘시사 터치 코미디 파일’ 공동 진행 ㄱ 아나운서)

“— 꺠직꺠직한[꺠찌꺠찌칸] 시국 사건이 —”(99.10.31. MBC TV ‘시사매거진 2580’ 보도 기자(남))

“꺠직꺠직한[꺠찌꺠찌칸] —”(99.12.30. MBC TV ‘99 MBC 연기 대상’ 전체 사회 ㅅ 아나운서(남), 00.3.5. MBC TV ‘시사매거진’ ㅍ 기자)

“—우리나라엔 꺠직한[꺠찌칸] 전국 대회가 —”(00.3.31. K1TV ‘제3지대’ 해설 ㅍ 성우)

“한국 무용사에 꺠직한[꺠:찌칸] 자취로 —”(00.4.24. K2TV ‘TV 명인전’ 해설 〇 성우)

“— 꺠직한[꺠찌칸] —”(00.6.11.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ㄷ 기자)

“— 꺠직꺠직한[꺠찌꺠찌칸] —”(00.9.5. K1TV ‘제주 스페셜’ 예고 제주 아나운서(남))

⑤ **굵다**: 용언의 어간 말음 '리'이 [리]로 발음되는 경우는 'ㄱ' 앞일 때이다. “--- 땅만 굵고[글꼬] 있었습니다.”(98.12.31. MBC R '지금은 라디오 시대' ㄱ 공동 진행자(여)), “은경이는 여전히 몸을 굵고[글꼬] 있었다.”(00.7.19. K2TV '병원 24시' ㄱ 성우) 등의 예를 들 수 있겠다.

“너무 바가지 굵지[글찌] 마세요.”(99.11.2. MBC R '지금은 라디오 시대' 공동 진행(임시) ㄱ 텔런트(여), [극찌]라야 옳다.)

⑥ **늑(수구레하)다**: “--- 늑지[늘:찌] 앓는 마음을 두고 멀리 가버리는 몸.”(00.6.26. K1TV '아름다운 실버' 해설 〇 아나운서(여),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복순 씨는 “몸만 늑지[늑:찌] 마음은 안 늑어요.”라며, 겹차음을 바르게 발음했다. 다만, '늑'은 단음이니 [늑찌]라야 한다.)

“더 늑지[늘:찌] 마시라고 ---”(00.8.15. K1TV 뉴스9 오영재 북한 시인의 시를 읽은 성우(남))

“--- 늑고[늘:꼬] ---”(00.8.17. SBS TV 8뉴스 〇 기자)

“(엘지 트윈스 팀에) 웬 늑수구레한[늘수구레한] 아저씨가 있으니 ---”(00.9.1. MBC TV '생방송 화제 집중' 해설 성우(남), [늑수구레한]이 정확하다.)

⑦ **맑(디맑)다**: “오늘은 맑고[막꼬] ---”(80.5.11.08:00 DBS R 'DBS 뉴스 쇼' 보도 기자(남))

“--- 맑잖아요[말짜나요]?”(00.4.30. EBS TV '철학 에세이' 〇 교수(여),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발음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정확한 발음은 [막짜나요].)

“내일 우리 나라는 맑다가[말따가] ---”(00.6.6. MBC TV '마감 뉴스' ㅎ 앵커(기자, 남))

“--- (시냇물도) 맑디맑습니다[말디말씀니다].”(00.10.1. K1TV 뉴스9 ㅎ 기자, 00.10.7. K1TV '취재 파일 4321' ㅎ 기자), [막띠막씀니다]라야 한다.)

“그 속은 맑디맑은[말띠말근] ---”(00.10.3. 제주 K1TV '한라산 3부작' 중 제1부 '오름의 신비' ㄱ 해설자)

⑧ **밝다**: “--- 사람에게만 (인사성이) 밝다[발따]는 것이다.”(99.1.16. MBC TV '테마 게임' ㄱ 개그맨(gagman))

“(농민들의 표정이) 그리 밝진[발:진] 않습니다.”(00.5.19. K1TV '뉴스 네트워크' 춘천=ㄱ 기자(아나운서(?))

“날이 밝자[발:짜] ---”(00.5.22. K2TV '뉴스 투데이' 〇 기자)

“--- 얼굴이 그리 밝지는[발찌는] 못했어요.”(00.7.15. MBC R '지금은 라디오 시대' ㄱ 공동 진행자)

- “— 시장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발:썩니다].”(00.7.29. K1TV '취재 파일 4321' ㄱ 기자)
- “— (날씨는 찌푸렸지만) 마음은 밝습니다[발:썩니다].”(00.9.25. MBC R '제주 비전 열린 이야기' 공동 진행 ㅎ 아나운서(남))
- “저는 사실 잠귀가 밝거든요[바꺼드뇨].”(00.10.8. K2TV '시사 터치 코미디 파일' ㅈ 진행자(남), 전체적으로 발음이 좋은 편이고 우리말에 관심이 많아 이 일로 수상까지 했으나, 발음에 좀더 신경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 회담의 전망은 밝지[발:찌] 않습니다.”(00.10.16. K1TV 뉴스9 ㄱ 기자(남))
- “— 감귤 전망도 밝지[발지] 않은 실정입니다.”(00.12.10. MBC TV 뉴스데스크 제주 뉴스 ㅈ 기자(남))
- ⑨ **올다**: “시조를 읊지[올찌] 그러냐?”(98.12.20. MBC TV 극 '남자 셋 여자 셋' ㄱ 텔런트)
- “(佛齋家 박정자는) 새벽 두 시면 일어나 불경을 읊기[올끼] 시작한다.”(99. 1.4. K1TV 'TV 명인전' 해설 ㄴ 성우)
- ⑩ **읽다**: “아주 국어책을 읽지[일찌] 그래요?”(98.12.20. MBC TV 극 '남자 셋 여자 셋' 호경이 역의 텔런트)
- “그러니까 아줌마들 마음을 읽는[일른] 거죠.”(99.11.3. MBC R '지금 은 라디오 시대' 공동 진행(임시) ㄱ 텔런트(여), [익는→일는]이라야 한다.)
- “— 주어진 대본을 읽는[일른] 것부터 —”(00.3.20. K2TV '뉴스 투데이' ㅂ 기자)
- “이름은 읽지[일찌] 맡아 주세요.”(00.6.8. MBC R '지금 은 라디오 시대' ㅈ 공동 진행자(여))
- “— 초읽기[초익끼]에 들어갔습니다.”(00.10.19. K1TV '뉴스 라인' ㅇ 공동 앵커(여))

## 2) 그릇된 切音 · 連音

받침을 절음된 상태에서 연음하여 틀리는 일이 많다.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받침이 모음과 이어질 때도 제 음가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먼저 해당 규정을 보인다.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ㅇ'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뉘다[닥따]    키웁[키웁]    키웁과[키웁파]    웃[으]

웃다[으:따] 있다[일따] 젓[전] 빛다[빔따]  
 꽃[꼰] 쫓다[죤따] 술[순] 뺨다[뺨:따]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하, 하)'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크, 트, 츠]로 발음한다.

농고[노코] 종던[조:턴] 쌓지[싸치] 많고[만:코]  
 앉던[안턴] 닭지[달치]

[붙임 1] 받침 'ㄱ(리), ㄷ, ㅈ(리), ㅈ(리)'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음을 합쳐서 [크, 트, 프, 츠]로 발음한다.

각하[가카] 먹히다[머키다] 밝히다[발키다]  
 만형[마형] 좁히다[조피다] 넓히다[널피다]  
 꽃히다[꼬치다] 앉히다[안치다]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ㅈ, ㅊ, 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웃 한 벌[오탄벌] 낮 한때[나탄때] 꽃 한 송이[꼬탄송이]  
 술하다[수타다]

2. 'ㅎ(하, 하)'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쓰]로 발음한다.

당소[다쏘] 많소[만:쏘] 싫소[실쏘]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농는[논는] 쌓네[싼네]

[붙임] '하, 하'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안네[안네] 안는[안는] 똥네[똥네 → 똥레] 똥는[똥는 → 똥른]

\* '똥네[똥네 → 똥레], 똥는[똥는 → 똥른]'에 대해서는 제20항 참조.

4. 'ㅎ(하, 하)'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낳은[나은]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 많아[마:나]  
 앉은[아는] 닭아[다라] 싫어도[시러도]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까아[까까] 웃이[오시] 있어[이씨] 낮이[나지]  
 꽃아[꼬자] 꽃을[꼬출] 쫓아[꼬차] 밭에[바태]  
 앞으로[아프로] 덮이다[더피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넋이[넉씨]    앉아[안자]    닭울[달글]            짚어[절머]  
 굶이[골씨]    할아[할타]    읊어[을퍼]            값울[갑쓸]  
 없어[업:씨]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발 아래[바다래]      늪 앞[느밤]            젓어미[저더미]  
 맛없다[마덜따]      걸웃[거돋]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신타], [머신타]로도 발음할 수 있다.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넋없다[너겍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제16항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디글이[디그시]      디글울[디그슬]      디글에[디그세]  
 지웃이[지으시]      지웃울[지으슬]      지웃에[지으세]  
 치웃이[치으시]      치웃울[치으슬]      치웃에[치으세]  
 키웁이[키으기]      키웁울[키으글]      키웁에[키으게]  
 티웁이[티으시]      티웁울[티으슬]      티웁에[티으세]  
 피웁이[피으비]      피웁울[피으블]      피웁에[피으베]  
 히웁이[히으시]      히웁울[히으슬]      히웁에[히으세]

제17항 받침 'ㄷ, ㅌ(ㅎ)'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곧이들다[고지들따]      굳이[구지]            미닫이[미다지]  
 땀받이[땀바지]      발이[바치]            벼훑이[벼훑치]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굳히다[구치다]      달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ㄹ), ㄷ(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먹는[멍는]      국물[궁물]      짚는[짙는]      키웁만[키웁만]  
 뭉뭉이[몽뭉씨]      굶는[궁는]      훑만[홍만]      닫는[단는]  
 짓는[진:는]      옷맵시[온맵씨]      있는[인는]      맞는[만는]  
 첫명울[전명울]      쫓는[죙는]      꽃망울[콘망울]      붙는[분는]  
 놓는[논는]      잡는[잠는]      밥물[밤물]      앞마당[암마당]  
 밟는[밤:는]      읊는[음는]      없는[업:는]      값매다[감매다]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책 넣는다[챙넌는다] 흙 말리다[홍말리다] 옷 맞추다[온마추다]  
 밥 먹는다[밤멍는다] 값 매기다[감매기다]  
 제19항 받침 'ㄱ,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담력[담:녁] 침략[침낙] 강릉[강릉]  
 항로[항:노] 대통령[대:통녕]  
 [붙임]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막론[막논 → 망논] 백리[백니 → 뱃니] 협력[협녁 → 협녁]  
 십리[십니 → 십니]

- ① **몫·삯**: “하루 품삯으로[품싸그로] 받아온 —”(99.1.7. K2TV ‘추적 60분’ 보도 PD, 당연히 [품싸스로]라야 한다.)  
 “— 남씨의 몫으로[모그로] 남아있습니다.”(99.1.19. K2TV ‘공개 수배 25시’ 0 기자,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이어질 때는 뒤엣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제14항). 이 때 ‘ㅅ’은 된소리가 되므로 [목쓰로]라야 정확한 발음이다.)  
 “한몫을[한모글] 하지 않았나 —”(00.9.24. K2TV ‘일요일은 즐거워’ 중 ‘출발! 드림팀’ 진행 0 개그맨, 이 개그맨은 발음에 너무 무관심하고 오류가 많아 방송 진행자로는 결격이라고 생각한다. 10대들이 보고(듣고) 따라할 테니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각성을 촉구한다.)
- ② **기슭**: “한대오름 기슭[기슬] 일대에는 —”(00.10.3. 제주 K1TV ‘한라산 3부작’ 중 제1부 ‘오름의 신비’ ㄱ 해설자, [기슬]이 옳다.)
- ③ **닭[鷄]·흙[土]**: “닭은, 흙에”는 그대로 연음하여 [달근·홀게]면 된다(제14항). 흔히 [다근·호게]이라 하는데, 이는 순전히 무관심 또는 무지 탓이다. 방송 종사자와 출연자의 노력과 주의를 촉구한다.  
 “— 이들이 판 닭은[다근] —”(98.12.19. MBC TV ‘경제 매거진’ 0 기자)  
 “— 오:리와 닭을[다글] 직접 —”(00.7.31. MBC R 제주 ㄴ 음식점 선전(여), [오:리]는 맞다.)  
 “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흙의[호게] 문학상 —”(80.7.27.17:00 MBC TV 뉴스 아나운서(여), 당시 발음법으로는 [홀기]라야 정확한 발음이다. 지금은 [홀기/홀게]이다.)  
 “— 사마귀는 흙으로[호그로] 사라지거나—”(99.1.5. EBS TV ‘숲 속의 작은 제왕 사마귀’ 해설 ㄱ 성우)  
 “이렇게 생명 활동이 왕성한 이유는 흙에[호게] 있었다. — 흙과[혹과], 흙이[호기], 흙을[호글] —”(00.6.5. K1TV ‘앙코르 환경스페셜’(재) ㄱ 성우, 이 성우는 ‘표준 발음법’ 정독과 함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흙

과[혹과]는 [혹과]라야 한다(제11항).)

“— 흙의[흐기], 흙으로[흐그로] —”(00.7.4. K2TV ‘마이 웨이’ 해설  
 ㄱ 성우, 그나마 절음 상태에서 끊어 읽기에 가깝게 발음했다.)

④ 값: “— 제값을[제가블] 받게 되어 —”(00.10.11. MBC R ‘제주 비전  
 열린 이야기’ 공동 진행 ㅎ 아나운서(남). [제갑살]이 옳은 발음이다.)

⑤ 맏이: “맏이[마디]를 큰 오름, 들제를 —”(00.10.3. 제주 K1TV ‘한라산  
 3부작’ 중 제1부 ‘오름의 신비’ ㄱ 해설자(남). [마지]라야 한다. 이 정도  
 면 정말 문제가 크다.)

⑥ 곳: ‘곳’은 [곧]이지만(제9항), 연음될 때는 대표음으로 소리 내지  
 않는다.

“(헬기까지 동원한) 이곳에서만[이고데서만] —”(98.12.29. SBS TV  
 8뉴스 ㄱ 기자. [이고세서만]이라야 한다.)

“이곳에서[이고데서] —”(00.7.22. K1TV 뉴스9 전주 뉴스 ㄴ 기자)

⑦ 깨끗이: “누나가 방 깨끗이[깨끗치] 치워 놓고 있을게.”(00.4.25. K2TV  
 극 ‘바보 같은 사랑’ ㅂ 텔런트(여). 아마 대표음인 [깨끔]+‘히’로 잘못  
 알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개인적 오류는 무지와 그릇된 습관에서 비롯되  
 었을 것이다. 방송 출연자의 각성이 절실하다.)

⑧ 빛: “기업들이 빛이[비시] 많아서 —”(80.7.6.08:30 DBS R 뉴스 ㄴ  
 기자(남))

“(은행 카드는) 빛으로[비스로] 생각하는 거죠.”(98.12.31. K2TV ‘98  
 KBS 연기 대상’ ㄴ 연극인(여))

⑨ (불)꽃·숫·(불)(햇)빛: “— 화분에 꽃을[꼬슬] 꽃기도 했습니  
 다.”(80.6.6.08:00DBS R ‘뉴스 쇼’ ㄷ 기자(여))

“꽃이[꼬시] 지금 500원 갑니다.”(80.6.6.09:20 DBS R ‘명랑 교차로’  
 ㄴ 코미디언(남))

“가슴의 예쁜 꽃이[꼬시] 아름답습니다.”(80.6.11.TBC TV ‘가요 베스  
 트10’ 진행 ㅎ 코미디언(comedian, 남))

“복사꽃이[복사꼬시] —”(00.1.6. K1TV ‘뉴스 라인’ ㄴ 기자. [복싸꼬  
 치]라야 한다.)

“잉크는 숫에[수테] —”(00.7.1. K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공동 진  
 행 ㅈ 아나운서(여). 출연자도 ‘숫은[수튼], 숫에[수테]’라 했는데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불꽃이[불꼬시] 위로 —”(00.7.16 MBC R ㄱ 보일러 광고 ㄴ 텔런트  
 (남))

“햇빛에[햇비테] (살갓이 타서) —”(00.7.28. K1TV ‘무엇이든 물어보  
 세요’ 공동 진행 ㅈ 아나운서(여). ‘햇빛[해뻬/헨뻬]’과 ‘햇볕[해뻬/헨뻬]’  
 을 적당히 섞은 것인지 몰라도 참 묘한 발음이다. 여기에서는 ‘햇빛’에

다 '햇볕에'가 적합한 말이다.)

"가로등 불빛을[불비들] —"(00.8.1. MBC R '지금은 라디오 시대' 〇 공동 진행자(남))

- ㉑ **끝에 · (자갈)밭을 · (햇)볕에**: "저건 말야 햇볕에[헨벼세] 눈을 보호 할려고 쓰는 거예요."(80.9.22. KBS TV '개구장이 철이' 〇 텔런트, '밭에 [바테]처럼 연음해야 할 말을 틀리는 것은 잘못된 습관과 부주의 탓이다. '보호할려고'도 마찬가지이다.)

"눈앞에 뵈히 보이는 자갈밭을[자갈바슬] 달릴래. —"(99.11.15. MBC TV 극 '날마다 행복해' ㅂ 텔런트, [바슬]도 아니고 웬 [바슬]인지 참 묘한 일이다.)

- ㉒ **끝이(을) · 발이 · 콩팥이**: 받침 'ㄷ, ㅌ(ㅈ)'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며,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으로 발음한다(제17항). '끝에'는 [끄테]지만 '끝이'는 동화되어 [끄치]로 발음된다. '발이'가 [바치]로 발음되는 이치와 같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점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각각 '[디], [티]'로 切音이나 連音 상태로 발음하기도 한다. 오래전부터 너무나 많이 틀리는 발음인데, 무관심과 부주의 탓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전당 대회가 오늘 낮에 끝이[끄시] 났습니다."(80.7.6.21:00 TBC TV 뉴스 ㅂ 아나운서(남))

"하지만 콩팥이[콩파시] 있어야죠."(80.9.14. TBC TV '형사' 환자 역의 텔런트)

"— 마늘밭입니다[마늘바심니다]." (98.5. K1TV 뉴스9 제주 뉴스 〇 기자(남))

"감귤밭이라기보다는[바시라기보다는] —"(99.1.5.00:10 제주 K1TV (프로그램명 미상) 일본의 감귤 산업에 대한 현장 르포 ㄱ PD)

"수사의 시작과 끝이[끄티]라고 하는 신병 확보에 —"(00.5.15. K1TV 뉴스9 ㅅ 기자)

"— 끝이[끄시] 납니다. —끝을[끄슬] —"(00.7.30. K2TV '슈퍼 TV' 일요일은 즐거워의 '출발 드림팀' 진행 〇 개그맨, 그 짧은 시간에 '[끄시], [끄슬]'을 10여 차례나 반복했다. 아나운서나 성우보다 텔런트나 개그맨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을 전제할 때, 적어도 우리말 사용에 관한 한, 이 개그맨은 방송 출연 자격이 없다고 생각 한다.)

"(남북 이산 가족의) 만남은 끝이[끄시] 아니라 —"(00.8.18. K1TV 뉴스9 ㅂ 기자)



⑫ **들넉에(을)**: '들넉에[들:러케]'처럼,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할 말(제13항)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일이 아주 많다. 절음된 상태에서 연음하는데, 절음·연음법칙을 혼동하고 있는 탓인 듯하다. '밭 아래[바다래], 부엌 안[부어간]'과 '낮이[나지], 부엌이[부어키]' 등이 서로 달리 발음되는 예를 상기하면 좋겠다. 적어도 방송 출연자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고쳐야 한다.

"— 들넉에[들너게] —"(00.7.24. JTV '뉴스&뉴스' 전주 뉴스 7 기자)

"(파일이 익어가는) 들넉을[들(:)러클] —, 들넉에[들(:)러케] —"(00.8.11., 00.8.23. K1TV 뉴스9 7·8 공동 앵커, 오랜만에 들어보는 바른 연음이었다. 욕심을 낸다면, '들'을 좀더 길게 해서 [들:러클]로 확실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⑬ **무릎에**: "— 부인 무릎에[무르베] —"(99.1.8. K2TV '코미디 세상 만사' 진행 사 개그맨(남), 왜 [무르페]라고 못하는지 궁금한데 방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들넉에[들:러케], 부엌이[부어키], 앞을[아플]'이나 같은 경우다.)

⑭ **담백하다·만형·용납하다·합법화·뜻하다** 등: ㄱ+ㅎ=ㅋ, ㄷ+ㅎ=ㅌ, ㅂ+ㅎ=ㅍ인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무시하고 따로 떼어서 발음하거나 'ㅎ' 음을 생략하는 이상한 풍조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음운 외적인 여러 사정이 더해져 근래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이를 방송 종사자들은 한껏 부추기고 있는 듯하다. 받침 'ㅎ(ㄱ, ㄷ)'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받침 'ㄱ(ㄷ), ㄷ, ㅂ(ㅈ), ㅈ(ㅊ)'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한다. 또 '웃 한 벌[오탄벌], 낮 한때[나탄때]'처럼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ㅈ, ㅊ, 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고 '표준 발음법'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제12항). "--- 종합해[중하배] 보겠습니다."(80.6.8.21:20 KBS TV 뉴스 外信 보도 7 기자), "일부 물지각한[물지가간] 의료 기관---"(80.7.29. TBC TV 'TBC 석간' 7 기자)같이 예전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나, 지금은 정도가 너무 심해서 바른 발음을 만나기 어려운 지경이다. "정확(正確)한[정화칸] ---"(00.8.1. MBC TV '뉴스 데스크' 제주 뉴스 8 기자, 이 기자는 비교적 뚜렷하고 억양도 좋은 편이나, 장단음에도 유의

바란다. [정:화칸]이 정확한 발음이다.)이란 발음은 그래서 반가웠다.

“— 담백하고[담배가고] 깨끗한 맛이 일품인 —”(99.1.4. K1TV '뉴스 네트워크'(지역 연결) ㅂ 기자. 지역적 특성이기는 하지만, '깨끗한[깨끄 탄]'은 정확히 하면서, '담백하고'는 왜 'ㅎ' 음을 아예 무시하는지 모를 일이다. '담백(淡白)[담:백]'은 장음이다.)

“축협(畜協)[추겹]은 —”(99.2.7. MBC TV '뉴스 데스크' ㅅ 기자)

“— 유해를 안고 귀국하게[귀구가게] 되며—”(99.8.25. MBC TV '뉴스 데스크' ㅂ 특파원)

“— 참혹했습니다[차모깁습니다].”(00.4.4. MBC TV 'PD수첩' ㄱ PD, [참호깁습니다]라야 한다.)

“산불의 속도와 경로를 파악합니다[파아감니다].”(00.4.21. K1TV '취재 파일 4321' ㅅ 기자)

“— 그 동안 서먹했던[서머깁던] 관계 —”(00.4.30. K1TV 뉴스9 ㄱ 기자)

“— 작고 가름한 얼굴에 집착하는[집차가는] —, — 심각하게[심차가 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 — 우리 사회가 각박함을[각바가물] —”(00.4.30.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ㅂ 기자. 각각 '[집차가는], [심차가게], [각빠카물]'인데, 이 기자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

“PD 수첩'이 방송을 시작한[시자간] 이래 —”(00.5.9. MBC TV 'PD 수첩' 90.6.10. 방송분 보도 PD, [시:자칸]이 옳다.)

“— 상황이 심각합니다[심가감니다].”(00.7.5.07:00 K1TV 뉴스 ㅅ 기자)  
 “이식한[이시간] 피부가 자리를 잡고 있는지 —”(00.7.19. K2TV '병원 24시' ㄱ 성우)

“북한[부간]”(00.7.20. MBC TV '100분 토론' ㄱ 국회 의원, 방청석의 ㅅ 씨, “북한[부간]”(ㅅ·ㅈ 교수, ㅎ 국회 의원, 방청석의 ㅈ 씨)이 당 연한데도 신선하게 들릴 정도이다. [부간]이라야지 도대체 [부간]이란 곳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전문 방송인인 성우까지 거 들고 나섰다. 참 난감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 북한[부간] 남침설을 —”(00.8.6.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설 ㅅ(?) 성우)처럼 요즘은 성우까지 이렇게 발음한다.)

“해 확산[해 확산] 방지”(00.7.23. K2TV '뉴스 투데이' ㅅ 기자, 마땅히 [해확산]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혹 일어날지 모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도 이(제12항 불임1:받 침 'ㄱ(ㄹ), ㄷ, ㅂ(ㅃ), ㅈ(ㅉ)'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 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한다.)와 같도록 조항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 솔직하게[솔지가게] —”(00.7.26. EBS TV '다큐 이 사람' 해설

- 기 성우, 성우들마저 이럴 때 필자는 절망까지 느낀다.)  
 “— 공개하기 시작한[시작간] 것은 —”(00.7.30. K1TV '시사 포커스' 일본=스 특파원)  
 “— 납득할[납드갈] 수 없는 —”(00.7.30. K1TV '추적 60분' ㅎ PD, [납뜨갈]이 옳다.)  
 “— 육박했습니다[육바게습니다].”(00.7.30.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ㅎ 기자, [육바깁습니다]라야 한다.)  
 “— 의과대학에 진학할[지나갈] 때—”(00.7.31. MBC R '두 시의 취재 현장' 진행 ㅎ 해설 위원, 게다가 '진:학(進學)'은 장음이다.)  
 “(엘지 트윈스 팀의) 든든한 만형[만형] —”(00.9.1.MBC TV '생방송 화제 집중' 진행 ㅎ 아나운서, '만'과 '형'을 떼어 읽어 이상한 말이 되었다. [마형]이라야 한다(제12항1. 붙임1).)  
 “개고기 합법화[합버봐] 논쟁—”(99.8.19. MBC TV '마감 뉴스' ㅎ 앵커와 ㅎ 해설 위원, [하빠봐]라야 맞다. 대부분의 사전에 '합법[-법]'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합뻬]으로 읽으라는 뜻이 되어 문제가 있다.)  
 “— 적법하게[적버바게] —”(00.3.21.23:10 K1TV '뉴스 라인' ㅎ 기자와 ㅎ 민국당 대변인)  
 “지난달 주택을 구입한[구이반] 김여옥 씨는—”(00.4.28. K1TV '취재 파일 4321' ㅎ 기자)  
 “—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밀지반] —”(00.5.30. MBC TV 'PD 수첩' ㅎ PD, [밀찌판]이라야 한다.)  
 “— 결코 용납하지[용나바지] 않습니다.”(00.7.20. MBC TV '마감 뉴스' ㅎ 해설 위원)  
 “— 수집(蒐集)하고[수지바고/수집 하고]”(00.7.25. MBC TV 'PD 수첩' ㅎ PD, 틀린 두 가지 발음을 혼용하였는데, [수지파고]라야 한다.)  
 “그 동안 주민을 위협했던[위혀뻬던] —”(00.7.30. K1TV '추적 60분' ㅎ PD, [위혀뻬던]이라야 한다.)  
 “— 배급했고[배급 뻬고] —”(00.7.30.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ㅎ 기자, 묘하게 두 말을 꿰어 읽었는데, 시급히 시정해야 할 풍조이다. [배:그뻬꼬]가 옳다.)  
 “뜻하지[뜨다지] 않은 일이 —”(00.3.24. K1TV '취재 파일 4321', '은평구청의 개인 정보 유출' 보도 기자)

⑮ **낮 한때**: '웃 한 벌[오탄벌], 술하다[수타다]'처럼 '낮 한때'는 [나탄때]로 발음해야 한다(제12항1. 붙임2). 그런데도 '낮'과 '한때'를 따로따로 발음하는 잘못된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낮 한때[날 한때]”(00.7.8.09:40 MBC TV '뉴스 데스크' 전주 뉴스 ㅎ 앵커(아나운서, 여))

㉞ 뜻있다: '밭 아래(바다래), 맛없다(마답따)'처럼, 대표음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져 발음되는 말이니 '뜻있다'는 [뜨덜따]로 발음해야 옳다.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신타], [머신타]로도 발음할 수 있다(제15항). 왜 '맛있다, 멋있다'만 예외인지 의문이지만, '뜻있다'를 [뜨신타]라고 틀리게 발음한 지는 꽤 오래되었다. 바로잡아야 할 말이지만, '맛있다, 멋있다'를 예외로 했으면 '뜻있다' 역시 여기에 포함시켜야 타당하다.

“— 양로원을 찾는 뜻있는[뜨신는] 사람들조차 줄어들고 있습니다.”(80. 9.22. KBS TV 뉴스 보도 기자)

“— 뜻있는[뜨신는] 추석을 보냈습니다.”(80.9.23. TBC TV '뉴스의 현장' 보도 기자)

### 3) 자음의 유성음화

'하다', '살다'처럼 모음이나 유성음 사이에 있는 자음이 유성음화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어두 첫 자음을 유성음화하는 일은 쓸데없는 걸멋이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영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근래의 젊은 가수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를—”(98.5. K1TV 뉴스9 제주 뉴스 〇 기자, '다'를 유성음((da))으로 발음하였다.)

## 2. 모음

모음을 정확히 발음하기는 의외로 어렵다. 특정 지역이나 개인의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방송인은 모름지기 정확한 발음을 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우선 해당 규정을 보인다.

제4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붙임] 'ㅛ,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제5항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쨌, 처]로 발음한다.

- 가지어 → 가저[가지]    찌어 → 쨌[찌]    다치어 → 다쳐[다쳐]
- 다만 2. '예, 레' 이외의 '례'는 [계]로도 발음한다.
- |                   |                  |
|-------------------|------------------|
| 계집[계: 집/계: 집]     | 계시다[계: 시다/계: 시다] |
| 시계[시계/시계](時計)     | 연계[연계/연계](連繫)    |
| 예별[예별/예별](袂別)     | 개폐[개폐/개폐](開閉)    |
| 혜택[혜: 택/혜: 택](惠澤) | 지혜[지혜/지혜](智慧)    |
-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ㄴ]로 발음한다.
- |     |    |     |      |    |
|-----|----|-----|------|----|
| 닐리리 | 닝큼 | 무늬  | 띄어쓰기 | 씩어 |
| 띄어  | 회어 | 회땀다 | 회망   | 유회 |
-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계]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              |                  |
|--------------|------------------|
| 주의[주의/주이]    | 협의[허브/허비]        |
| 우리의[우리의/우리에] | 강의의[강: 의의/강: 이에] |

① 예: 지역 또는 개인에 따라 [예]로 발음하는 경향이 짙은데, 심지어 [예]로 소리 내기도 한다. 전남 지역에서는 '례'와 '례'를 합쳐서 중간음을 내기 때문에, 우리말의 10모음 체계는 9모음 체계에 가깝게 된다. 전북 지역은 대체로 10모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귀'와 '니'를 발음하지 못하고, '귀'와 '니'를 합쳐 중간음을 내기도 한다. '례'와 '례', '니'와 '니' 등을 구분하지 못해 6모음 체계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물론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경상 방언 화자보다 9모음 체계의 전라 방언 화자가 표준어에 쉽게 동화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긴장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자기만 편하게 말하기 때문에 발음이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방송 종사자는 정확한 발음을 하도록 피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렇게 했어도 교정되지 않는 발음은 방송인의 자격에 중대한 결격 사유이다.

“국립극장 대극장(태:극장)에서 ——(00.1.6. K1TV '뉴스 라인' 〇 기자)  
 “—— 매도(賣渡)[매:도], 매수(매:수), 대부분[태:부분] ——, —— 매도세(賣渡勢)[매도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매물(賣物)[매:물]——”(00.3.31. 14:20, 00.7.20.14:20, 00.10.13.14:20 MBC R '두 시의 취재 현장' ㄷ 중권 ㅂ 씨(남), '매도세'는 [매:도세]라야 한다. 전문 방송인이 아닌 태도 다른 발음은 대체로 정확한 편이나, '례'와 '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결정적인 흠이다. '매:도세'의 '매'는 장음이다. 뉴스의 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한 발음에 좀더 신경 써야 한다.)

- “— 내세우고[네세우고] 있다.”(00.4.7. 제주 K1TV ‘16대 국회 의원 선거 제주 지역/후보 정책 토론회’, [내:세우고]라야 한다.)
- “대규모[대규모] 시설입니다. — 내사(內査)[네사]에 착수했습니다.”(00.7.18.06:00 K1TV 뉴스 ◦ 기자, 각각 [대:규모], [내:사]라야 한다.)
- “대회[대회]에 참가한 농민 20여명이 —”(00.7.18.06:00 K1TV 뉴스 ◦ 기자, [대:회]라야 한다.)
- “(완도의) 해수욕장[해수욕장]이 —”(00.7.27. K1TV 뉴스 ◦ 기자, [해:수욕장]이라야 한다.)
- “동양 최대[최:대]의 석불 —”(00.7.28. K1TV 뉴스 ◦ 기자)
- “무대[무:대]가 아니면 절대로 대중[대중] 앞에 —”(00.7.28. MBC TV ‘MBC 스페셜’ 해설 ◦ 성우(여), 각각 [무:대], [대:중]이라야 한다.)
- “(월남 실종자) 박우식 대위도 —”(00.7.30.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 기자, 다른 발음은 비교적 정확한데도 [대:위]와 [대:위]를 혼용하였다.)
- “출장 매춘[매:춘]을 알선하는 —”(00.8.3. K1TV 뉴스9 ◦ 기자)
- “대립[대:립]과 반목으로 — 대사건[대:사건] —”(00.8.23. K1TV 뉴스9 ◦ 기자)
- “— 패배[패:배]를 아쉬워하는 —”(00.9.19. K2TV ‘뉴스 투데이’ 시드니 ◦ 기자)
- “— 한나라당의 태도[태:도] 변화 여부가 —”(00.9.22.09:30 K1TV 뉴스 ◦ 기자)
- “— 대부분[대:부분] 사람들이 잠든 새벽 —”(00.10.15. K1TV ‘취재 파일 4321’ ◦ 기자(남))
- “재보궐[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00.10.18.09:50 K2TV 뉴스 ◦ 기자(남))

② 어:특정 지역 발음의 특징인데, [어]를 [으]로 또는 [으]를 [어]로 발음하는 일이 많았다. 같은 [어]라도 장단에 따라 발음 방법에 많은 차이가 있으니, 이른바 ‘半開(閉)母音’을 말한다. 특히 우리 나라 남부 지역이 이 구분에 취약한데, 근래엔 전국이 다 구분을 하지 못하는 듯하다. 무엇보다 ‘반개(폐)모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로 바른 우리말 사용에 커다란 장애다.

‘없다[엷:따]’를 [읍:따]라 하는 것은 서울 사투리의 영향으로 보인다. [엷:]은 입을 적게 벌리고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읍:]에 가깝게 되어 구태여 적으면 [으엷따]처럼 들리는데, 정확히 [읍:]이라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KBS ◦ 아나운서(여)가 좀 심한 편이다. KBS

ㅂ 아나운서(여, 00.7.6.09:50 K1TV 뉴스), ㅁ 아나운서(여, 00.8.2.19:30 K1TV '뉴스 네트워크' 제주 뉴스)는 이 발음이 비교적 정확하였다.

'第:一, 在:日, 鄭:, 丁'의 발음에 대한 다음 설명은 '半開(閉)母音'을 쉽게 구별해 주리라 본다. "발음상 예/에 구별이 저절로 되는 사람만이 '鄭/丁' 발음을 구별할 수 있다. 입을 적게 벌리고 '第(jeh), 鄭(Juhng)'을 발음하고 그보다 입을 두 배쯤 많이 벌리고 '在(jaih), 丁(Jaung)'을 발음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남부방언에서는 이 구별이 잘 안 된다. --- 이처럼 반 좁힌(half-close) 모음과, 반 넓은(half-open) 모음이 쉽게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은 방송인으로는 아예 결격이라 할 것이다."<sup>2)</sup> 가령, '正:常的, 警:察, 專:業主婦, 錢:氏' 등은 입을 적게 벌려서, '頂上, 卥氏' 등은 많이 벌려서 발음한다. 심지어 "이것을 구별해 적지 못하는 데에 현행 한글 맞춤법 최대 맹점이 있다."<sup>3)</sup>고까지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필자 또한 '반개(폐)모음'에 대한 인식과 구분은 방송인의 자격을 가늠할 정도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 철저한 검증(檢證)[금중] —"(00.5.9. K1TV 뉴스9 ㅅ 기자)

"— 검사장(檢事長)[금사장] —"(00.7.17. K1TV 마감 뉴스 ㅅ 기자, 檢事長[검:사장]이 줄지에 淸 社長[금 사장]이 되었으니, 발음 잘못으로 뜻까지 변했다.)

"정:성숙 선수는 —"(00.9.19. K2TV '오늘의 시드니 올림픽' 진행 ㅅ 아나운서, 입을 많이 벌리고 길게 [ㅈ]라 발음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어버렸다. 반 좁힌(half-close) · 반 넓은(half-open) 모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듯하다. 이 아나운서는 또 '외'를 '왜'로 발음하는 버릇도 있다.)

③ 예:[애]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 애'에서 언급했다.

"— 우리 사회를 애들러[애들러] 표현한 것은 아닌지 —"(00.4.30.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ㅂ 기자, [예:들러]라야 한다.)

④ 예:'예, 례' 이외의 '례'는 [계]로도 발음할 수 있으나(제5항 다만 2.), 특정 지역에서는 아예 [애]로 발음하기도 한다. 당연한 이중 모음을 "예술[애:술], 예산[애:산], 계집[개:집]" 등처럼 단모음 [애]로 발음하는 습관은, 적어도 방송에서는, 지양해야 할 일이다.

2) 유만근, "방송언어 발음문제-97 가을 KBS뉴스를 듣고-", 한국교열기자회, 「말과글」, VOL.73(1997. 겨울號), 52~53쪽.

3) —, "우리 나라 방송 언어 발음 문제", 국립국어연구원, 「새 국어생활」, 5권 4호(1995. 겨울), 77쪽.

“예년(例年)[애년]과 비슷한 —”(80.6.7.21:30 TBC TV 뉴스 일기 예보 기 씨(남), [예:년]이라야 한다.)

“계급(階級)[기에:급]과 —”(99.11.20.19:20 MBC R 뉴스 기 아나운서(여), ‘계’를 장음으로 발음한 것도 잘못이지만 [기에]라 한일은 지나친 것이다.)

“—(조선인족의) 범죄 예방[에방]을 위한 —”(00.3.21. MBC TV ‘PD 수첩’ ㄱ PD, ‘케’를 [기]로도 발음할 수 있는 경우는 ‘예, 레’ 이외의 ‘케’일 때이다(제5항 다만2.)). [예:방]이라야 한다.)

“— 그 동안 서먹했던 관계[관계]를 —”(00.4.30. K1TV 뉴스9 기 기자, [관계/관계]라야 한다.)

“— 김 전대통령에 대한 예우[애우]로 —”(00.5.9. K1TV 뉴스9 기 기자, [예:우]라야 한다.)

“(정부는 특히) 이런 추세가 계속[개:속]될 경우 —. — 인간 승리의 감동이 계속[개:속]됐습니다.”(00.7.2.10:10 K1TV 뉴스 기 기자, 00.10.23. K1TV 뉴스9 ‘스포츠 뉴스’ 시드니=ㅇ 기자, [계:속/개:속]이라야 한다.)

“우리는 계속[개속] 근무할 수밖에 없네.”(00.7.8. SBS TV 극 ‘도둑의 딸’(재) 형사 역의 텔런트(남))

⑤ **와:** 분명한 이중 모음을, ‘확실히[학실히]’처럼, 단모음 [ㅏ]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가연] 어떻게 이런 일이—”(00.5.16. MBC TV ‘PD 수첩’ ㅎ PD, ‘과’는 장음이다.)

“(동아일보가) 조선일보 못지않은 위상을 과시[가시]했습니다.”(00.5.16. MBC TV ‘PD 수첩’ ㅎ PD)

“광주(光州)”(00.5.18. MBC TV ‘정운영의 100분 토론’, 전남 지역의 토론자 ㅁ·ㅇ 씨는 ‘광’을 짧게 발음하여 좋았으나, 대신 [강주]에 가까웠다. 물론 이건 지역적 특성의 반영이고 이들이 방송 전문인이 아닌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나, 바른 발음을 보이기 위해 든 것이다.)

“— 과잉(過剩)[가잉] — 黨과[당가] —”(00.7.20. MBC TV ‘100분 토론’ ㅎ 국회 의원, [과:잉]이라야 한다.)

“관통(貫通)[간통]”(00.7.27. MBC TV ‘100분 토론’ ㅂ 변호사(여))

⑥ **왜:** [외], [웨]로 심지어 [애]로도 발음하는 실정이다.

“참으로 께쌌[괴쌌]하구나!”(98.5.9. K1TV 극 ‘龍의 눈물’ 태종 역의 ㅇ 텔런트)

“이런 께쌌[개쌌]한!”(98.5.31. K1TV 극 ‘龍의 눈물’(재) ㅈ 텔런트)

“고려는 웬지[웬지] —”(00.3.26. K1TV ‘역사 스페셜’ 해설 ㅇ 텔런트, 혹 원고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발음이 비교적 정확한 텔런트인데도 [we



(wæ))와 [we]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⑦ 외:단모음인 '외'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필자 개인적으로는 의문이지만, 현행 규정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제4항 붙임). '외'는 [ø]가 원칙이지만 이중 모음인 [we]도 좋고, '위' 역시 [y]가 원칙이나 [wi]나 [qi]도 좋다는 뜻이다. '외'가 중세 국어에서는 이중 모음([oj])이었지만 단모음([ø])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외'를 [we(wæ)]로 발음하는 경우를 자주 듣는 바, 그러면 [왜]가 되어 뜻이 달라진다. 필자는 '외'를 단모음으로 발음하지만 의식적인 노력도 더해진 것이고, 대다수의 언중은 단모음으로 소리 내기 어려워한다. 그렇다고 해서 [왜]로 발음하는 것은 뜻의 전달과 발음 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이런 현상은 꽤 오래된 것이다.

7대 이상의 서울 토박이인데도 [ø]와 [y] 발음을 들어본 일이 없으면서, 국어학이 탁상 이론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한 글<sup>4)</sup>은 참고할 만하다. 이중 모음이 단모음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지금 '외', '위'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라는 일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필자는 주변에서 정확한 [ø] 발음을 많이 들어보았다. "지은이는 시골서 자라서 [외] 발음을 잘 하는데, 서울 사람들은 [왜]라고 한다."<sup>5)</sup>는 말에 공감하는 바 크다. 가령 요즘 제주의 젊은이들이 '·' 발음을 잘하지 못한다고 아예 이 음을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하나 덧붙인다면, 대부분의 국어 사전이 '금괴(금괴), 외설(외:설), 외출(외:출)'처럼 표기하고 있는데,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했으니 당연히 '금괴(금괴/금괘), 외설(외:설/왜:설), 외출(외:출/왜:출)'로 표기해야 마땅하다. 『표준 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의 표기는 이 점에서 바람직하다.

"원손[웬:손]으로 썼어요. — 죄[채:]를 졌으니까 —"(80.9.14. TBC TV '형사' 7·0 텔런트)

"가령 외국[왜:국]에서 편지가 왔을 때 —"(80.6.15. DBS R '유쾌한 응접실' \* 교수)

4) 김정수, "우리네 말글살이의 현실(2)", 한글학회, 『한글 세소식』, 333호(2000. 5.), 9쪽.

5) 하회주, 『바른 말 바른 글』, 을지출판공사, 1990. 570쪽.

“1회[회]”(00.4.28. K2TV ‘스포츠 중계석’ 스 아나운서(남). 이 아나운서는 [외]를 [왜]로 발음하는 버릇이 있다.)

“외상 공사”(00.5.7. K1TV 뉴스9 제주 뉴스 스 앵커(아나운서, 여). 이 아나운서도 ‘외’를 [왜]에 가깝게 발음하는 좋지 않은 버릇이 있다.)

“외국의 예를 설명하고 —”(00.7.4. K2TV ‘마이 웨이’ 해설 스 성우. [외:국/왜:국]이라야 하는데 [왜국]에 가깝게 발음했다.)

“굉장히[공장히] 고심했어요.”(94.10.26. K1TV ‘아침 마당’ 스 배우. ‘굉장히’의 오용에 대해서는 후술함.)처럼 심지어 [요]로도 발음하는데, 물론 개인적인 버릇이지만,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은 우리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⑧ 으:특정 지역에서는 [으]를 [어]처럼 발음한다. 中堅인 ○ 성우(남)는 아직도 ‘관습(慣習)’을 [관섭]에 가깝게 발음하는데, 전문 방송인이라면 피나는 노력을 해서 고쳐야 한다.

“흔히[헌히]”(00.7.25. MBC TV ‘PD 수첩’ 스 PD. 이 PD는 다른 말도 발음이 너무 부정확하다. 끊임없는 노력 바란다.)

“음란(淫亂)[엄:란]”(00.7.27. MBC TV ‘100분 토론’ 스 변호사(여). [음란]이라야 한다. 이 변호사의 또 다른, 틀린 발음은 후술한다. 이렇게 발음이 엉망인 경우에는 당연히 방송 출연을 삼가야 할 것이고 방송사에서조차 출연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⑨ 의(의/이/에):특정 지역에 따라 발음하는 습관이 달라 그 영향이 크지만, 적어도 방송에서는 바른 발음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의 [으] 생각엔 ---”의 경우에는 우리말식이 아니라는 문제도 있거니와, 일종의 유행처럼 퍼지다가 굳어질 위험성도 있다. “의과 대학(醫科大學)”을 [이과대학]이라 하는 지역에서는 이를 ‘이과 대학(理科大學)’으로 알아듣기 쉽다.

방송인은, 허용하는 발음보다 원칙적인 발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 ‘의’를 왜 [에]로 발음해도 좋은지(제5항 다만4) 필자는 이해되지 않지만, 여하튼 ‘우리의’는 [우리에]보다 [우리의]가 더 좋다는 말이다. [一]는 길고 [ ]는 짧게 해서 정확하게 [의]((i:i(ɯ:i)))로 발음해야 할 것이다. “--- 가슴의[에] 예쁜 꽃이 ---”(80.6.11. TBC TV ‘가요 베스트 10’ 진행 스 코미디언)에서 보듯이,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조사 ‘의’를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 ‘표준 발음법’은 1988. 1.에 고시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마땅히 [의]로 발음해야 하는데도 전혀 상관없이 말하고 있다. 더욱 큰일은 이젠 아

예 [으]로 읽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 국회 의원[으원] —”(98.6. K2TV ‘추적 60분’ 보도 PD(남))

“남의[에] 발 좀 밟지 맙시다.”(00.4.4. K1TV ‘어린이 유치원 하나 들셋’ 목소리 출연 성우(남), 특히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원칙적인 발음이 바람직하다.)

“— 의미[오미] 있는 (회동이 될 것입니다.)”(00.4.30. K1TV 뉴스9 7기자, [의:미]라야 한다.)

“— 그의[에] 생각을 송두리 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00.5.9. K2TV ‘마이 웨이’ 해설 ㅅ 성우, ‘의’는 되도록 [의]로 발음해야 바람직하다. ‘채’는 ‘째’라야 하는데 별고에서 논술하겠다.)

“노인들은 삶의[살메] 질에 있어서 —”(00.5.14. K1TV ‘KBS 스페셜’ 해설 ㅅ 성우, [살:미]가 원칙적인 발음이니, [一]는 길고 [l]는 짧게 하는, [의]가 더 좋다. 혹자는 “첫음절은 [의], 둘째 음절 이하의 [이], 조사는 [에]로 발음하는 것이 — 가장 쉽고 듣기에도 좋은 것이다.” 하며 ‘민주주의의 의의’는 [민주주의에 의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니 이렇게 발음할 일이라고 설명한다<sup>6)</sup>. 그러나 조사 ‘의’를 [에]로 발음해도 좋다는 규정은 바로 ‘민주주의의 의의’ 같은 경우를 위해 나온 것이지, 모든 조사 ‘의’를 [에]로 발음하기 위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요, 또 그래야 마땅하다. 조사 ‘의’를 [에]로 발음하는 것이 가장 쉽고 듣기에도 좋다고 하는 것은 언중을 오도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본다. 원래의 발음은 아니지만 마지못해 허용하는 [에] 발음을 왜 성우나 아나운서까지 하려고 드는지 모를 일이다. 아마 [의]보다 [에]가 발음하기 편하다는 단순한 까닭일 것이다. 둘째 음절 이하의 ‘의’는 [이]로 발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우다. 가령 ‘상의’를 [상이]라고 발음하면 가장 쉬울지는 몰라도 정확한 뜻의 전달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상의]는 자연히 [상이]에 가깝게 되지만, 즉 [으]의 길이가 짧아져서 [i:i(ɯ:i)]가 아니고 [ii(ɯii)]가 되지만, [i]는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별이 어려우므로, 둘째 음절 이하의 ‘의’를 [이]로도 허용하는 것이지 이러한 발음이 ‘가장 바람직’하지는 않다. 게다가 ‘상의(相議)’와 ‘상이(相異, 傷痍, 霜異)’는 뜻부터 전혀 달라 혼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도 [상의]처럼 [의]로 발음하는 것이 좋다. ‘—에 있어서’는 정말 마뜩찮은 표현이다. 이 점은 별론한다.)

“우리 팬들의[에] 바람은 —”(00.5.18. K2TV ‘연예가 중계’ 공동 진행 ㅅ 아나운서(남), ‘의’는 [의]라고 발음하는 것이 더 좋고, ‘바람’은 ‘바람’이다.)

“오늘 훈련의[에] —”(00.7.2. SBS TV ‘뷰티풀 라이프’ 해설 성우(남))

“안녕하십니까? TV는 사랑을 싣고[실코]의[에] 김ㅇㅇ입니다.”(00.7.3. K2TV ‘TV는 사랑을 싣고’ 7 개그맨(남), 역시 [의]가 더 바람직하다.

6) 박갑수, 「우리말 바로 써야 한다 1」, 집문당, 1996, 40쪽.

‘실고[실코]’는 ‘II-3-1)-⑤ 실다’에서 후술한다.)

“여야간의[에] 의견[이견]이 맞서서 —”(00.7.5. K1TV ‘이한동 총리 지명 청문회’ 보도 기자(남), 혹 ‘의견[이견]’은 ‘이견(異見)’인지도 모르겠다.)

“인생의[에] 회노애락을—”(00.7.18. K2TV ‘마이 웨이’ 해설 ㄱ 성우,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노애락’은 어이없는 말이다.)

“의견(意見)[오견]”(00.7.27. MBC TV ‘100분 토론’ ㄱ 편집장, [의:견]이라야 한다.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은 토론자로 문제가 있다.)

“정몽헌 의장[오장]측에 —”(00.7.28. K1TV 뉴스9 ㄱ 기자)

“항의[항으] 시위 — 동아시아 최대의[으] 미 공군 기지입니다.”(00.7.30. K1TV ‘추적 60분’ ㄱ PD, [항:의]라야 한다.)

“의료[의료] 대란이 —, — 의과[오과] 대학에 진학할[지나갈] 때 —”(00.7.31. MBC R ‘두 시의 취재 현장’ 진행 〇 해설 위원, ‘진학할[지나갈]’에 대해서는 ‘II-1-2)-⑭ 담백하다’에서 전술하였다.)

“항의[항으] 시위 — 동아시아 최대의[으] 미 공군 기지입니다.”(00.7.30. K1TV ‘추적 60분’ ㄱ PD, [항:의/항:이]라야 한다.)

“의료[의료] 대란, 의권[오권] 쟁취 —, — 의과[오과]대학에 진학할 때 —”(00.7.31.14:20, 00.8.2.14:20 MBC R ‘두 시의 취재 현장’ 진행 〇 해설 위원)

“한나라당 의원[오원] 네명과 무소속 의원[오원] 한명이 —”(00.8.1. MBC TV ‘뉴스 데스크’ 제주 뉴스 ㄱ 기자, 초등 학생이 책 읽듯 말하던, 이 기자의 높고 단조로운 억양은 많이 나아졌으나, 좀더 정확한 발음을 공부했으면 한다.)

“도의원[오원] —, — 의견[오견]이 제시됐습니다.”(00.8.1. MBC TV ‘뉴스 데스크’ 제주 뉴스 〇 앵커(기자), [의:견]이라야 한다.)

“의회[오회]에 —”(00.8.1. MBC TV ‘뉴스 데스크’ 제주 뉴스 ㄱ 기자)

“의[의]혹, 의[오]원”(00.8.2.19:30 K1TV 제주 뉴스 ㄱ 아나운서(여), [의] 발음이 [으]와 혼용되었으나, 그나마 나은 편이다.)

“(장가용 씨는) 의사(醫師)[오:사] 자격으로 —”(00.8.17. SBS TV 8 뉴스 ㄱ 기자, [의사]라야 한다.)

“의과[오과] 대학, 의대[의대], 의·정(醫政)[의정] 대화”(00.10.16. K1TV 뉴스9 ㄱ 기자, [의]와 [으]를 혼용하였다.)

“— 사고에 대비할 의무[오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00.10.16. K1TV 뉴스9 ㄱ 공동 앵커(여))

[의]를 일부 지역에서는 [이](00.4.7. K1TV ‘16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지역/후보정책토론회’)나 [어]로 발음하기도 한다.

“의도적(意圖的)[어:도적]”(00.7.20. MBC TV ‘100분 토론’ ㄱ 국회 의원)

“흔히[헌히]”(00.7.25. MBC TV ‘PD수첩’ ㄱ PD)

“의식(意識)[어식]”(00.7.27. MBC TV ‘100분 토론’ ㅂ 변호사)

“제주도 의사회(醫師會)[이사회]는 —”(00.10.9. K1TV 뉴스9 ㅅ 기자 (남), ‘理事會’로 오해할 수도 있다.)

### 3. 동화

먼저 해당 발음법을 보인다.

제17항 받침 ‘ㄷ, ㅌ(ㅈ)’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곧이듣다[고지듣따]      곧이[구지]      미단이[미다지]

땀받이[땀바지]      밭이[바치]      벼홀이[벼홀치]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곧히다[구치다]      달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제18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ㅌ, ㅍ, ㅈ, ㅊ, ㅌ, ㅎ), ㅂ(ㅃ, ㅍ,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먹는[명는]      국물[궁물]      깎는[깡는]      키움만[키움만]

뭉뭉이[몽목씨]      꺾는[궁는]      흥만[흥만]      단는[단는]

짓는[진:는]      옷맵시[온맵씨]      있는[인는]      맞는[만는]

젓명울[전명울]      쫓는[죤는]      꽃망울[꼰망울]      붙는[분는]

놓는[논는]      잡는[잠는]      밤물[밤물]      앞마당[암마당]

밭는[팍:는]      읊는[음는]      없는[엄:는]      값매다[감매다]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책 넣는다[챙넌는다]      흥 말리다[흥말리다]      옷 맞추다[온마추다]

밥 먹는다[팍멍는다]      값 매기다[감매기다]

제19항 받침 ‘ㄹ,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담력[담:녁]      침략[침낙]      강릉[강능]

향로[향:노]      대통령[대:통녕]

[붙임]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막론[막논 → 망논]      백리[백니 → 뱅니]      협력[협녁 → 협녁]

십리[십니 → 십니]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1) 난로[날: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할루]

대관령[대:괘령]

(2) 갈날[갈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림끼] 할는지[할른지]  
 [붙임] 첫소리 'ㄴ'이 'ㄹ', 'ㅍ'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맑는[달른]                      풀는[뜰른]                      할네[할래]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판녁]              공권력[공편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내]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뵤노]              구근류[구근뉴]

제21항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감기[감:기](×[강:기])              옷감[온감](×[옥감])  
 있고[일꼬](×[익꼬])              꽃길[꼭길](×[꼭길])  
 젓먹이[전머기](×[점머기])              문법[문뵤](×[뵤뵤])  
 꽃밭[꼭뵤](×[꼭뵤])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붙임]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 1) 그릇된 동화

① 공권력(公權力): '맑다'와 함께 아마도 방송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발음일 것이다. '제20항 붙임(다만)'에 의거, 동화되지 않고 [공편녁]으로 발음해야 하는 예외적 단어다. 그러나 [공꺄(:)력], [공편력], [공편녁], [공권력], [공권녁] 등으로, 심지어 이들을 적당히 섞어서까지 발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 끝내 공권력[공꺄력]까지 투입되었지만 —”(98.12.30. MBC TV '뉴스 초점' 〇 기자)

“공권력[공꺄:력]의 신뢰 회복 —”(00.1.3. K1TV 뉴스9 ㄱ 공동 앵커(남). 스 기자는 [공편:녁]으로 발음했는데, 정확하게는 [공편녁]이다.)

“정당한 공권력[공꺄력]이 도전 받는 사회는 —”(00.1.7.14:00 MBC R '두 시의 취재 현장(뉴스 광장(?))' 진행 해설 위원(남))

“공권력[공꺄력]”(99.7.29. K2TV '추적 60분' 보도 기자, 00.4.8.12:10 MBC R 뉴스 ㄱ 아나운서, 정오 뉴스인데도 두 차례나 [공꺄력]이라고 발음하였다., 00.4.11. K1TV 뉴스9 ㄱ 공동 앵커(남), 00.7.9.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참여 연대 B 변호사, 00.7.15. 14:10 MBC

R 뉴스 ○ 아나운서, 00.7.20. K1TV '길종섭의 쟁점 토론' ♣(?) 검사  
와 ○ 변호사)

"(의료 공단에) 공권력[공필력]이 투입되었습니다."(00.7.1. K1TV 뉴스  
9 스 앵커. ㄱ 기자는 [공필력]과 [공권력]을 혼용하였다.)

"집단 행동 앞에 무너지는 공권력[공필력] —"(00.7.3. K1TV 뉴스9  
ㄱ 공동 앵커(남)와 스 기자, 오히려 인터뷰에 응한 ㄷ 민노총위원장은  
[공권력]으로 맞게 발음하였다.)

"(국민 의료 보험 공단에) 공권력[공필력]이 투입된 이후—"(00.7.4.  
K1TV 뉴스9 ㅂ 기자)

"공권력[공권력]"(00.7.9.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ㄱ 기자)

"의협은 부당한 공권력[공필력] 행사—"(00.7.13.12:00 MBC R 뉴스  
ㄱ 아나운서(남))

"공권력[공권력/공필력/공권력]"(00.7.20. K1TV '길종섭의 쟁점 토론'  
스 교수는 두 가지 발음([공필력/공권력]을 혼용하였다. ㄱ 사회자는 글  
자대로에 가깝게([공권력]) 발음하였다. 반면 방청석의 학생 세 명과 시  
민 단체 젊은 직원의 바른 발음([공권력])은 꺾 희망적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나중에 [공필력/공권력]이라 할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재폐업 병원에) 공권력[공필력]을 투입 —"(00.7.31.09:30 K1TV 뉴  
스 ㄱ 기자)

"공권력[공필력] 차원과 —"(00.9.19. K1TV 뉴스9 ㅂ 기자)

"부당한 공권력[공필력]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는 —"(00.10.12. MBC  
R '두 시의 취재 현장' 스 기자(남))

"— 공권력[공권력] 행사에 앞서 —"(00.10.17. K1TV 뉴스9 ○ 기자  
(남))

"--- 공권력[공권력]의 위신을 실추시키려는 ---"(00.10.22.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설 ㅈ 성우(남))

② 대관료(貸館料):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다  
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면, '의견란(의:견  
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량), 결단력(결판력), 공권력(공권력),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례),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  
원료(이원료), 구근류(구근류)' 등의 예를 들고 있다(제20항). 그런데 이  
조항의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예시한 몇 단어들을 한정해 지칭하는  
지 아니면 예로 든 말들 같은 구조로 된 단어를 지칭하는지가 불분명  
한 점이, 혼란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또는 형식의) 말들은'으로 확실히 범위를 정

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다.

“(영화 용가리 상영을 위해 세종문화회관에 내야 하는) 대관료[대괄료]를 —”(00.7.30.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0 기자, ‘대’는 장음이다.)

‘대관료’는 현존 사전에 표제어로 나오지 않는 말인데, 여하튼 [대괄료]라 하는 것은 모호한 규정 탓이 크다고 본다. 위의 ‘입원료[이원료]’처럼, ‘대관료’는 [대:관료]라야 바른 발음이다. 이를테면 ‘결단력[결단력]’, 이원론[이:원논], 구근류[구근류]와 같은 구조를 가진 말 즉 ‘추진력[추진력]’, 일원론[一元論], 다원론[多元論], 사전류[辭典類], 사전류[事典類], 법전류[法典類]가 각각 [추진력], [이원논], [다원논], [사전류], [사:전류], [법전류]로 읽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더 아쉬운 점은 ‘-리, -陵(지명)에 대한 예시가 포함되지 않았고, ‘-路(지명)를 확실히 하지 않아 일어나는 혼란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⑦ 지명’에서 상론한다.

③ 반년(半年)·천년(千年): “— 편지가 왔을 때 반년(발련)이나 —”(80.6.15. DBS R ‘유쾌한 응접실’ \* 교수, 도무지 동화할 이유가 없는 말로 정확한 발음은 [반:년]이다.)

‘천년’ 역시 [천년]이라야 하는데 ‘새 천년[새:천년]’식의 틀린 발음을 자주 듣는다.

④ 신념(信念)·전념(專念): “— 그렇게 신념[실념]이 약한 —”(80.6.15. DBS R ‘특별 수사 본부’ 출연 성우)

“굳은 신념[실념]을 갖고 안정과 평화의 —”(80.9.22.18:40 KBS TV 뉴스 아나운서(남))

“신념[실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00.7.20. MBC R ‘싱글벙글 쇼’ \* 공동 진행자(여), 역시 동화가 안 되는 말로, [신:념]이 정확한 발음이다.)

“(총리가) 국정에만 전념[절념]하겠다고 —”(00.3.19.12:50 K1TV 뉴스 \* 아나운서(남), ‘전념’ 역시 동화하면 안 되는 말이다. [절념]이라면 ‘絶念, 竊念’이 되어 뜻이 달라진다.)

⑤ 신다: “짐 실기[실키] 편리한 —”(80.10. \* 자동차 붐고 마스터 선전)

“— 추가 연료 무게만큼 연료를 못 실는다는(몰실른다는) 겁니다.”(98.12.29. MBC TV ‘뉴스 데스크’ 0 기자, ‘신다’는 동화되지 않으므로 [몰:실른다는]이라야 하는데도 불필요한 동화를 하고 있다.)

“(덤프 트럭에 과적하도록) 화주들이 실는[실른] 거죠?”(99.1.5. MBC R ‘지금은 라디오 시대’ 0 공동 진행자(남), [신:는]이라야 한다.)

“(전남일보 사주인) 이 후보에게 유리한 사전을 실는[실른] 등—”(00.5.16. MBC TV ‘PD 수첩’ \* PD)



“안녕하십니까? ‘TV는 사랑을 싣고[실코]’의 김○○입니다.”(00.7.3. K2TV ‘TV는 사랑을 싣고’ ㄱ 개그맨(남), [신:꼬]라야 한다.)

“(골프 장비들) 한 차량에 옮겨 싣습니다[실쑤니다].”(00.7.18 K1TV 뉴스9 ㄱ 기자(남))

⑥ 地名:

㉑ 一령(嶺) · 一루(樓):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제20항). 즉 ‘광한루’는 [광:할루]로, ‘대관령’은 [대:팔령]으로 읽는다. 따라서, “광한루, 대관령”은 복합어이기 때문에 원래는 [광한누], [대관녕]이라야 옳으나, 관례에 의해 발음이 굳어진 대로 [광할루], [대팔령]이어야 한다<sup>7)</sup>는, 말하자면 자음동화의 예외라는 설명은, 장단음은 차치하고라도 잘못된 것이다. ‘광한루, 대관령’은, “(병원 폐업을 조사하려고) 부산시 민락1동(밀락일뚱)으로 ---”(00.8.1.18:00 MBC R 뉴스 ㄱ 아나운서)의 ‘민락동’처럼 당연히 동화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광한루(광한루)의 남원이—”(00.3.28. MBC TV ‘MBC 스페셜’ 해설 ㄱ 성우(남). ‘광한루’를 글자대로 읽는 묘한 현상은 외국어를 열심히 한 탓인가? 게다가 이처럼 장단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은 다반사다. 이 성우의 발음에는 오류가 적지 않은데, ‘한라산 3부작’(00.10.3. 제주 K1TV)을 통해 이 글에서 지적하였다.)

㉒ 一로(路): ② 대관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정이 모호한 데서 기인한 발음의 혼란을 보여주는 예다. ‘다만’의 보기 중에 ‘횡단로(횡단노)’가 있으나, 지명(거리 이름)에도 적용되는지 모호하다. ‘신문로’, ‘남대문로’는, [신문로], [남대물로]라 하기도 하나, ‘횡단로’의 예에 따른다면 [신문노], [남대문노]라 발음해야 옳을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동화를 하지 않고 발음하고들 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신문로’ 같은 지명을 ‘다만’의 예에 넣어야 확실해질 것이다. 그런데 ‘태혜란노’는 앞에 외국(래)어가 붙어서인지, 방송이나 일반인이 모두 [태혜란노]라 한다. 이제 ‘표준 발음법’에서 외국(래)어 또는 외국(래)어+우리말의 합성어에 대한 발음 기준을 워 제시하는 일이 시급하다. 외래어의 발음에 대해서는 별론한다. 또 ‘노근리·침산리’ 같은 지명과의 상관 관계도 불확실하다. 이 점은 ‘㉑ 一리(里)’에서 다시 논의한다.

㉓ 一릉(陵): ‘선릉(宜陵)’은 당연히 동화를 하게 되는 말이니, 정

7) 안희재(KBS 아나운서실), ‘독자투고’(00.7.21. 중앙일보)

확한 발음은 [설릉]이다. 서울의 길 중에 '선릉로'가 있고, 서울의 지하철 역 중에 '선릉역'이 있다. 시내 버스와 지하철의 설명 녹음이 [설릉]인 점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데 '선릉 사거리'의 '선릉로' 도로 표지판(발음을 적는 것임.)은 'Sönnüng-ro'로 되어 있다(00.7. 현재. '-로'를 '-ro'로 적어야 좋은지는 재고할 만하다.). '강남 보건소' 앞 도로 표지판에는, '선릉역'이 'Seolleung Stn'(station의 약자는 sta.이지 stn이 아니다.)으로 되어 있는데(00.10. 현재) 바뀐 표기법에 따라 적은 것이다. 그런데 왜 이제는 [설릉]으로 적었는지 궁금하다. 「KBS」에는 [선능]이라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니 고쳐야 한다. 도무지 동화의 예외가 될 이유가 없다(아래의 표 참조). 참언하면, 「한국땅이름큰사전」(한글학회, 1991) 같은 데서 현지 주민의 발음을 같이 밝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선릉[선능/선릉]역”(00.6.22.11:00 MBC R 뉴스 사 아나운서, “선릉역”을 3번 읽었는데,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고 2번은 [선능]에 가깝게, 1번은 [선릉]으로 글자대로 읽었다. 범람하는 외국어 탓인지, 우리 말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거부하고 인위적으로 발음하는, 안타까운 풍조가 전문 방송인에게도 만연하고 있다.)

‘동구릉(東九陵)·서오릉(西五陵)’(「한글학회」에는, ‘서오능’은 비표준어로 되어 있다.)·태릉(泰陵)은 글자대로 읽으면 되는데도, 방송이나 일반인에게서 ‘[동구능]·[서오능]·[태능]’이라는 발음을 자주 듣는다. 「KBS」에는 이들 모두 [-능]을 표준 발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령(嶺), -루(樓)’는 ‘-로(路), -릉(陵), -리(里)’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ㄴ + ㄹ이 [ㄴ]과 [ㄹ]로 발음되는 대체적 기준으로 “하나의 한자어를 두 부분으로 분석했을 때 앞쪽의 것이 독립성이 있으면 [ㄴ]으로 발음하고 독립성이 없으면 [ㄹ]로 발음한다.”<sup>8)</sup>고 설명하고도 있다. 옳은 설명이지만, 이런 풀이는 일반인에게 어렵고 독립성 여부가 모호한 말도 있으며 ‘남대문로, 선릉, 청산리’처럼 같은 지명의 발음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현실음과 차이가 생긴다.

아래에 ‘동구릉, 서오릉, 선릉, 태릉’의 발음을 여러 사전에서 보인다.

8) 송철의, “표준 발음법”, 문화관광부, 「우리말 바로 알기」, 1998. 75쪽.

	국어연구원	한글학회	KBS	백산	민중	동아	금성	비고(표준 발음법)
동구릉	====	====	동구릉	—	—	—	====	동구릉
서오릉	====	====	서오릉	—	====	====	====	서오릉
선릉	설릉	====	선릉	설릉	—	—	—	설릉
태릉	====	====	태능	—	====	—	—	태릉

1.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국어대사전」(두산 동아, 1999) 2.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어문각, 1991.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의 고시(1988.1.) 이전에 작성된 원고를 출간한 것으로 보이나 발음에는 별 변동이 없으므로 같이 검토한다.) 3. 한국방송공사(KBS), 「표준 한국어 발음대사전」(어문각, 1993) 4. 이은정, 「우리말 발음사전」(백산출판사, 1992) 5. 국어국문학회, 「국어대사전」(민중서관, 2000):-편집국 편, 「옛센스 國語辭典」(민중서관, 1991. 수정판 제1쇄) 6. 「새 국어사전」(동아출판사, 1996. 개정판 3쇄; (주)두산 동아, 2000. 제4판 1쇄) 7. 「국어대사전」, 「뉴에이스 국어사전」(금성출판사, 1991; 1995. 혁신판)(—은 해당 사전에 표제어가 없음. ===은 발음 표기가 없음을 뜻한다. 발음 표기가 없으면, '표제어의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와 순수히 연음화 현상만 적용되는 경우'(「국어연구원」), '일반적인 경향으로 발음이 어렵지 않은 경우'(「한글학회」), '원음 즉 표제어의 글자와 다르게 발음되지 않는 말'(「민중」) 등을 말한다. '일반적인 경향으로 발음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는 「한글학회」의 일러두기는 너무 모호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비고(표준 발음법)'는 현실음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대로의 발음을 필자가 나타낸 것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별고로 논술할 예정이다. 이하 위의 사전들은 각각 「국어연구원」, 「한글학회」, 「KBS」, 「백산」, 「민중」, 「동아」, 「금성」으로 줄여 표시한다.)

'괘릉(掛陵)(경북 경주 소재), 동구릉, 사릉(思陵), 서오릉, 태릉' 등은 동화하지 않는 말이니 글자대로 발음해야 한다. 서울의 삼릉 공원 앞 도로 표지판이 '삼릉(Samnŭng)'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기도의 도로 표지판에 '태릉'을 '태능(T'aenŭng)'이라 한 것은 잘못이다. 서울의 표지판은 로마자 없이 '태릉, 사릉'으로 되어 있다(00.8. 현재).

"(국가 대표 배구 선수 윤경신은) 태릉[태능] 선수촌—"(00.7.6. K1TV 뉴스 0 기자, 언중을 오도하는, 「KBS」의 오류는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㉔ 一리(里): '표준 발음법' 제20항의 '다만'(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르'을 [ㄴ]으로 발음한다.)에 나오는 단어들이 일정하고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 야기되는 혼란에 대해 진술했는데, '노근리·당인리·양촌리·

청산리' 같은 지명 발음의 혼란 또한 소루하고 모호한 이 조항과 연관이 있다. '다만'에 예로 든 단어만 예외란 뜻인지, 그와 같은 구조-구조도 해석 나뉘었지만-를 한 단어가 예외란 뜻인지도 불명확하다. [ㄷ]로 발음하는 '광한루, 대관령'과 '다만'에 보인 '의견란, 생산량, 동원령, 횡단로, 이원론' 등의 예외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니면 이들이 별개의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20항 다만'에 '-리(里)'의 예가 없으니 동화가 되는 말이란 뜻이겠다. '청산리(靑山里)'의 경우, 「KBS」는 [청살리]라 하고 「국어연구원」(청산리 대첩, 청산리 싸움)과 「한글학회」는 발음 표기가 없으니 전자는 (청산리), 후자는 [청살리]로 발음하라는 말인가? 이 점이 꼭 모호하다. 「국어연구원」은 '표제어의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와 순수히 연음화 현상만 적용되는 경우'에 발음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인리'(당인리 발전소)도 「국어연구원」에 표제어로는 나오는데 발음 표기가 없다. 그러면 [당인리]로 읽으란 말인가? 대부분의 언중이 [청산니], [당인니]를 혼용하고 있으니 모호한 규정, 사전의 혼란 탓이다.

이러한 혼란 때문에 김청구님은, '칠산+리, 남산+리'의 주민은 각각 [칠싼니], [남살리]로 발음하고 있는 예를 들면서, '남대문+로', '남산+리' 등 모두 'ㄴ'으로 끝난 말 뒤에 'ㄹ'로 시작되는 형태소(-로, -리)가 붙은 것이므로 모두 통일해서 [ㄴ+ㄴ]으로 발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sup>9)</sup>. 실제로 자기 동네를 부르는 주민들의 발음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지원리(旨元里)'(전남)는 그 주민들 다수가 [지월리]라 하지만 [지원니]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정이 이러하므로, 이 경우에 [ㄴ+ㄴ]으로 발음하자는 의견은 현실을 반영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㉞ 고산리(高山里): "한경면 고산리[고산리] —"(00.7.17.17:00 MBC R 제주 뉴스 o 아나운서(남), 글자대로 읽는 묘한 발음이다.)

㉟ 광안리: 현지 주민들이 무어라 하든, 현행 규정으로는 [광:알리]가 옳다. 이상한 일은, 마치 외국어를 읽듯, 글자대로 읽는 묘한 풍조가 방송인에게도 만연하고 있는 점이다.

9) 김청구, "ㄹ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ㄴ' 받침으로 끝난 말에 붙는 경우의 발음", 한글학회, 「한글 새소식」, 227호(1991.7.), 16쪽.

“광안리[광안리] 해수욕장”(00.7.1. K1TV 뉴스9 스 기자(남), 00.7.16. K1TV ‘뉴스 네트워크’ 진행 스 아나운서(남), 장단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㉔ 노근리:1999년 가을경에 집중 보도된 ‘노근리 사건’ 보도는, 이 혼란의 심각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 ‘표준 발음법’으로는 [노글리]가 옳지만, 언론 보도에서는 대부분 [노근니]라 하고 있으며 심지어 로마자 처럼 [노근리]라고도 한다. 더욱 문제는 동일인이 한 프로그램에서 두 가지 발음을 혼용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현지의 발음도 지역마다 각자 이어서 혼란을 일으키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운 위에 정확한 발음을 하도록 특히 방송 종사자들을 먼저 교육해야 한다.

① [노글리]:MBC R 뉴스 스 아나운서(99.11.11.11:00), MBC R 뉴스 스 아나운서(남, 99.11.11.12:10), MBC TV ‘뉴스 데스크’ 워싱턴 특파원(99.11.13.),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비 성우(99.11.14.), SBS TV 뉴스 아나운서(남)(00.5.13.12:10).

② [노근니]:K1TV 뉴스 앵커 비 아나운서(여, 99.11.11.09:40),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미군의 이야기를 더빙한 성우(남)와 인터뷰에 응한 현지 주민들 대부분(99.11.14.), MBC TV 뉴스 스 아나운서(여, 00.5.13.12:00).

③ [노근리]:MBC TV ‘뉴스 데스크’ 워싱턴 특파원(99.11.13., 이 기자는 [노글리]와 혼용하였다.),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설 비 성우(99.11.14., [노글리]와 혼용하였다.), MBC TV ‘뉴스 데스크’ 미 육군장관 등(영어로 말하며)(99.11.13.), K1TV ‘뉴스 네트워크’ 청주=앵커(남, 00.8.25.), MBC R 뉴스 스 아나운서(00.9.21. 12:10).

이처럼 여러 가지로 발음하고 있으므로, ‘뽀’나 ‘路’ 같은 말이 붙어 만들어진 단어의 발음 통일을 위해 ‘다만’의 예에 넣어 혼란을 잠재우는 것이 좋겠다. [ㄴ+ㄴ]으로 발음하면, 대부분 [ㄴ+ㄴ]인 현지음과도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㉕ 당인리(唐人里):사건의 혼란상은 앞에서 보였는데, 이 곳만 [당인니]로 발음할 까닭이 없다.

㉖ 몽산리:“몽산리[몽살리]”(00.7.25. K1TV ‘네트워크 기획’ 해설 비 성우(여), 충남 몽산리의 독살을 소개하는 내용, [몽산리/몽산니]라고 하지 않고 제대로 발음했는데, 현지 주민들의 발음은 미상이다.)

㉗ 분원리(分院里):00.10.22. K1TV ‘TV 쇼 진품 명품’(○ 감정위원)에서처럼 [분원니]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㉔ 양촌리: 양촌리는 TV 극의 배경이라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한 집안에서도 ㅈ 텔런트(김희장 역)는 [양출리]라 하고, ㅊ 텔런트(김희장의 둘째 아들 역)는 [양촌니]라 한다. 발음 기준이 뚜렷하지 못한 데다 출연자나 제작진이 우리말 발음에 무지한 탓이 더해져서 발음이 제각각이다. 대개의 출연자는 [양촌니]라 했으나, ㅍ 텔런트(김희장의 옛 친구 역)는 [양출리]라 했다(00.1.2. MBC TV 극 '전원 일기'). 묘한 일은 "양촌리(양촌리)"(00.7.2. MBC TV 극 '전원 일기' 극 중 김희장의 두 아들과 일용이(ㅍ 텔런트) 그리고 읍내에서 만난 김사장 등)처럼 글자대로에 가깝게 말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표준 발음법'의 문제점과 출연자들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한 예다. 방송 종사자의 각성을 촉구한다.

㉕ 오산리(五山里): 전북 익산역 바로 옆의 역(군산선)은 '오산리'인데 현지 주민들은 대개 [오:살리]라 하지 않고 [오:산니]라 한다. 역의 로마자 표기는 'Osan-ri'라고 되어 있는 바, '-ro' 표기에 대해서는 별론하겠다.

㉖ 용문리: "용문리(용문니) 근처에서 —"(00.8.1.20:10 K1R '생방송 오늘' 교통 리포터(reporter)(여))

㉗ 월촌리: 극 중에 나오는 "월촌리"를 출연자 대부분이 [월촌니]라 하였으나, 일용네 역의 ㄱ 텔런트는 [월출리]라고 하였다(00.4.30. MBC TV 극 '전원 일기'). 현행 규정으로는 [월출리]가 옳다.

㉘ 유수암리(流水岩里): "(제주도 애월의) 유수암리[-리] 촌 —"(00.10.6. K1TV 'VJ 특공대' ㅊ 아나운서(여), 글자대로 읽었다.)

㉙ 청산리(靑山里): [청살리]라야 하는데, '청산리 전투[청산니 전투]'로 나온 사전도 있다. 현지음은 밝히지 못했다.

㉚ 테헤란로(-路): '테헤란로'는 앞에 외국(래)어가 붙어서인지, 방송이나 언중이 모두 [테헤란노]라 한다. 이제 '표준 발음법'에도 외래어 또는 외래어+우리말의 합성어에 대한 기준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별고에서 논한다.

㉛ 학여울: 서울의 3호선 전철역 중에 '학여울역'이 있다. 驛舍 표지판의 로마자 표기(00.5. 현재, Hangnyöul)도 그렇지만, '학-여울'은 당연히 [항녀울]이어야 한다(제29항: '남존-여비[남존녀비], 막-일[망닐], 색-연필[생년필], 한-여름[한녀름]' 등 같은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지하철 안의 방송은 [항녀울]이라고 하여 듣기 좋았으나, TV에서 학여울역 전시장의 전원 주택을 선전한 성우는 [하겨울]이라 하여 답답하였다(00.4.18.). 바뀐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은 도로 표지판에 'Hakyeoul Stn'으로 되어 있는 것(00.11.11. 현재 대치역 네거리)은 틀린 발음을 적은 것이니 바로잡아야 한다. [하겨울]로 읽는 사람들은 우리말 발음에 대해 많은 관심과 공부가 필요하다.

## 2) 동화시켜야 하는 말

① **곧 이어**: '제 18항 붙임'에서 제시한 대로, '웃 맞추다[온마추다], 값 매기다[감매기다]'같이,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음의 동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못 이기다[모디기다]'처럼 切呑을 한 대로 이어서 발음하는 그릇된 풍조가 있다. '곧 이어'도 같은 예인데, [곧니어]라고 제대로 발음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현존 국어 사전이나 발음 사전 중에는 「국어연구원」에만 '곧이어[붙여썼음]'라고 표제어로 나오는데 발음 표시는 없다. 즉 [고디어]로 읽으라는 뜻이다. '곧 이어'가 표제어로 오른 까닭이 선뜻 납득이 되지도 않거니와, 발음을 [고디어]라고 한 것은 틀린 것이다. '표준 발음법'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방송의 예는 너무 많아 다 들 수 없다.

"곧 이어[고디어] —"(00.5.31., 00.7.1.(이상 K1TV), 00.7.6., 00.7.14., 00.7.15., 00.7.27., 00.8.2.(이상 K2TV) 프로그램 예고 아나운서(남, 여), 00.7.1. K1TV '역사스페셜' 해설 ○ 성우, 00.7.18.06:00 K1TV 뉴스 ○ 기자, 00.9.19. K2TV '뉴스 투데이' 시드니=ㄱ 기자, 00.10.6. K1TV '뉴스 라인' ㄱ 기자)

'곧 이어[곧니어]'처럼 반드시 띄어써야 할 별개 품사인 두 말은 절대로 연음될 수 없으므로 '맛있다'는 [만닐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있다"의 'ㅣ' 모음의 특성 때문에 'ㄴㄴ'법칙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므로 '멋없다[머뎅따]'와는 또 다르다. 유사한 예로 '못 잊어, 못 이기다, 못 열어, 못 이루어, 못 있다, 댓잎, 뒷일, 뒷입맛, 사삿일, 가윗일, 짓이기다, 덧이다(重葺), 덧입다, 첫인상, 늦여름, 겹이불, 법유(法油), 금잉어'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음 'ㄷ'으로 절음되었다가 뒤의 'ㅣ' 모음의 영향으로 'ㄴ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데도 [고디어]로 발음하는

것은 이를 전파한 'KBS 한국어연구회'의 큰 흠이라는 것이다<sup>10)</sup>. 탈고할 때쯤 필자와 같은 생각인 이 글을 우연찮게 보고 느낀 반가움이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곧 이어'를 [고디어]로 발음하는 그릇된 습관이 KBS의 타인지는 모르겠으나, 필자는 위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보니 필자의 지적은 모두 KBS에서 방송한 것이다. 틀린 발음이 아나운서나 기자 뿐 아니라 성우에게서도 들리는 일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MBC TV에서는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방송됩니다."(00.8.14. 프로그램 예고)라 하였다("방송되었습니다"가 아니고 "방송됩니다"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KBS」에는 '곧 이어'가 없다.

무릇 모든 규정은, 뚜렷하고 일정한 기준과 이의 세밀한 적용 그리고 예외의 최소화에 그 생명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언어 생활을 오도하는 일에 방송이 앞장선다면 바르고 고운 우리 말은 정말 설 자리가 없게 된다.

② **납량(納涼)**: '납량(납양)'은 여름에 더위를 피하여 시원한 바람을 쐬는 일인데, [나양]이라고들 하고 있으니 시원하기는 커녕 덥기만 하다. '炎涼, 涉獵, 獵獵, 艱離別' 등 '납량'과 같은 예는 수없이 많다. 이게 'KBS 타'<sup>11)</sup>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빨리 시정해야 될, 대표적인 말이다. 이상한 일은 이런 현상이 KBS 소속이 아닌 방송인에게도 퍼져있는 점이다.

"납량[나양] (특선)"(97.8.26. K1TV 'TV 왕조 실록' 해설 0 텔런트, 00.7.6., 00.7.14., 00.7.27., 00.8.2. K2TV 프로그램 예고 아나운서(남), 00.7.12., 00.7.15., 00.7.28. MBC R '싱글벙글 쇼' 그 공동 진행자(남))

③ **낮 열두시**: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제18항 붙임)인 '낮 열두시'는 [난널두시]라 해야 한다. 그런데 [나널두시]라고 그릇 발음하는 것을 방송에서 종종 듣는다.

"— 오는 낮 열두시[나널두시] 반쯤 —"(00.3.25. SBS TV 뉴스8 앵커(남))

④ **낮익다**: '낮없다[나덥따]'와 달리 '낮익다'는 동화하는 말이므로 자

10) 徐康和, "철음법칙과 「나」음 덧나기-KBS는 잘못된 발음을 퍼뜨리고 있다", 한국교열기자회, 「말과 글」, VOL.72(1997. 가을號), 30~31쪽, passim.

11) Ibid.



연히 'ㄴ'이 첨가된다.(제29항: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그런데도 '낮익은'을 [나디근]으로 그릇 발음하는 현상은 꽤 오래된 것이다. 방송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낮익은[나디근] 친구들의 얼굴이 ——"(80.7.5.21:30 TBC TV 뉴스 초 기자)

"—— 낮익은[나디근] 얼굴 (분, 현상, 글씨)——"(94.10.26. K1TV '아침마당' ㄱ 공동 진행자(여), 98.5.12. K1TV '세계는 지금' 보도 기자, 99.1.9. MBC TV '특종! 오늘의 토픽' 진행 ㅎ 아나운서, 99.11.19. K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공동 진행 ㄱ 아나운서(여), 00.9.18. MBC R '싱글벙글 쇼' ㄱ 공동 진행자(여))

"—— 시위 현장에 낮익은[나디근] 얼굴이 있었다. ——, —— 취재팀은 낮익은[나디근] 얼굴을 발견했다."(99.10.15., 99.10.29. K1TV '현장 르포 제3지대' 해설 ㅂ 성우(남),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성우는 첨가나 동화도 잘 하지 못하는 버릇이 있다. 오랜 경력을 생각해서라도 각성과 노력이 있길 바란다.)

⑤ 못 이기다·못 이루다·못 일어나다·못 읽다·못 입다·못 잇다 등:방송인의 각성과 함께 홍보와 교육이 시급한 부분이다. '곧 이어'와 같은 성격의 말이다. 동화를 거쳐 첨가가 되는 말인데, '웃 입다(온넙따), 잘 입다(잘립따)'처럼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다(제29항 붙임2). 위의 말들은 각각 [몬니기다·몬니루다·몬니러나다·몬넉따·몬넙따·몬넛따]로 발음해야 하는데, [모디기다·모디루다·모디러나다·모딕따·모딕따·모딕따]로 대표음을 연음하는 잘못이 많다. 심지어 [몬 이기다·몬 이루다·몬 이러나다·몬 익따·몬 입따·몬 잇따]처럼 두 말을 따로따로 발음하는 경향이 퍼져 있다.

"협박에 (부모님의 설득에) 못 이겨[모디겨] ——"(98.5.13. K2TV '공개수배 25시' 진행 기자, 00.10.17. MBC R '싱글벙글 쇼' ㄱ 공동 진행자(여))

"큰 매형도 못 이겨요[모디겨요]."(99.1.6. MBC TV 극 '보고 또 보고' ㅂ 텔런트(남))

"—— 지 자식은 못 이기는[모디기는] 법이야"(99.11.1. K1TV 극 '해 뜨고 달 뜨고' ㄱ 텔런트)

"그래도 못 이기는[모디기는] 척 ——"(00.7.11. MBC R '싱글벙글 쇼' ㄱ 공동 진행자(여))

“(갯장어가) 성질을 못 이기고[모디기고] —”(00.7.17. K1TV ‘6시 내고향’ 창원=아나운서(리포터(?), 여))

“못 이룬[모디룬] 잠을 —”(00.7.4.07:00 SBS TV 뉴스 0 앵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몬 이루는] 밤이 —”(00.7.8. K1TV 뉴스9 0 기자)

“잠을 못 이루면[모디루면] —, — 잠 못 이루는[몬니루는] 밤.”(00.7.17. K2TV ‘클릭 날씨@생활’ 8 리포터(여), 같은 사람이 한 문단에서 발음을 혼용하고 있는 실태는 우리말 발음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우리말 발음에 관심과 자신이 없는 탓이다. 각성과 연수가 절실하다.)

“잠을 못 이루시지[모디루시지] 않을까 —”(00.7.22. K2TV ‘웹 투나잇’ 공동 진행자(여))

“— 잠 못 이루는[몬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00.8.17. KBS TV 뉴스 3 기자, [모디루는]도 아니고 그나마 따로따로 떼어서 말하는 묘한 풍조를 볼 수 있다. ‘표준 발음법’(제18항 붙임)에서 보인 대로, 붙여서 [몬니루는]이라야 한다.)

“개 못 일어나[모딜어나].”(00.5.6. K1TV 극 ‘좋은 걸 어떡해’(재) 7 텔런트(여), ‘제2회 KBS 바른 언어상’(연기 부문)을 받은 텔런트가 이 정도이니, 다른 일이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오빠, 오늘 졸려서 못 일어나겠단[모딜어나겠단] 말야.”(00.7.22. K2TV ‘사랑과 전쟁’ 아내 역의 텔런트)

“여자 분은 문제를 못 읽었어요[모덜거썌요].”(00.5.21. K2TV ‘접속! 해피 타임’ 공동 진행 8 텔런트)

“못 먹고 못 입고[모덜고] — 못 잊어요[모디저요].”(00.5.22. K1TV 극 ‘좋은 걸 어떡해’ 미주 역의 0 텔런트)

“오늘의 이 감격을 못 잊을[모디즐] 것 같아요.”(99.12.30. MBC TV ‘99 MBC 연기 대상’ 신인상 사회 8 텔런트, [몬덜고], [몬니저요]라야 한다. 연기자의 첫째 조건은 바르고 뚜렷한 발음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⑥ **살살이**: ‘살살이’의 정확한 발음은 [산싸치]이다(제23항). 그런데 「KBS」에는 [사싸치], 「한글학회」에는 [-사치], 「금성」에는 [살사치]로 나온다. 표준 발음의 정립과 사전의 바른 표기가 절실하다.

“— 일거수 일투족(一舉手一投足)을 살살이[산사시] 검사했다.”(99.11.7.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설 성우(남), 성우가 틀린 발음을 하는 일은 신뢰성이란 면에서 큰 해악이다.)

“살살이[산사시] 다 봤어요.”(00.10.2. K1TV 극 ‘좋은 걸 어떡해’ 0 텔런트(여))

“살살이[싼사치] 인터넷에 —”(00.10.7. K1TV 뉴스9 7 기자)

⑦ **수돗물(水道-)**: {수돈물}을 [수도물]이라는 것은 ‘수도물’을 바른

표기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돗물'은 '머리말, 꼬리말'과 왜 표기가 다른지 명확하지 않아 야기되는 혼란이다. '한글 맞춤법'(제 30항)에 따르면,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든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면 사이시옷을 받치게 되어 있다. 그 예로 '아랫니, 잇몸, 빗물, 갯날, 양치질, 훗날'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말이 어떤 것인지 발음법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표준 발음법' 보완이 시급하다.

⑧ 수학 여행(修學旅行):동화되어 'ㄴ' 음이 첨가된다(제29항). [수하여행]으로 연음하는 것은 그른 것이며, 더욱이 [수학 여행]으로 읽는 것은 우리말에 대한 인식과 노력 부족 때문이다. [수향여행]이 바른 발음이다.

"전교생이 수학 여행(수하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00.5.15. K1TV '아름다운 실버', 해설 ㄱ 성우)

"수학 여행단(수하 여행단)"(00.7.15.12:40 K1R '라디오 정보 센터(?)' ㄴ 진행자(여), 00.7.15.14:00 MBC R 뉴스 ㄹ 아나운서, 00.7.25. K1TV '뉴스 네트워크' 대구=보도 기자, 그나마 [수하]와 [여행단]을 묘하게 떼어 발음했다.)

"수학 여행(수학 여행)"(00.7.15. MBC R '싱글벙글쇼' ㄱ 공동 진행자(남), 00.7.16. K1TV '뉴스 네트워크' 진행 ㄴ 아나운서, 글자대로 끊어 읽었으나 [수하여행]에 가깝게 발음했다.)

"수학 여행(수하여행)"(00.7.16. 12:00 MBC TV 뉴스 ㄴ 아나운서(여))

⑨ 옛-: '옛'은 [엘:]이지만,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해야 하는 경우에도 [엘:]으로 따로 떼어 읽는 일이 너무 많다. 다음 말과 동화가 되어 첨가되는 말이다(제29항).

"옛 애인(엘 애인)"(00.7.18. K1TV '아침 마당' ㄹ 공동 진행자(남), '옛'과 '애인'을 따로따로 발음하는 현상을 전문 방송인에게서도 볼 수 있다. [엘:내인]이라야 옳다.)

"옛 여자(엘 여자) 친구 흥 씨를 —"(00.7.28. K1R '라디오 정보 센터' 뉴스 ㄹ 아나운서(여), [엘:여자]라야 옳다.)

"옛 영광(엘 영광)에 —"(00.7.30 K1TV 뉴스9 '스포츠 뉴스' ㄴ 기자, [엘:영광]이라야 옳다.)

"— 옛 영화(엘 영화)와는 거리가 멀다."(00.10.16. K1TV '한민족 리

포트' 해설 ㄱ 성우(남). [엔:녕화]라야 옳다.)

"옛[엘] 명성과 위상을 되찾기 위해 ---"(00.11.19. K1TV '일요 스페셜' 해설 ㅎ 성우(기자(?), 남)

⑩ 옛이야기: '옛-'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 출판하고 싶을 정도로 아끼는 옛이야기[엘이야기]들은 ---"(00.3.24 MBC TV 'MBC 스페셜' 해설 ㅂ(?) 성우(남). '옛'과 '이야기'를 끊어 읽었다. [엔:니야기]라야 한다.)

"--- 추억할 수 있는 옛이야기[엔 이야기]들이 있다."(00.5.14. K1TV 'KBS 스페셜' 해설 ㅈ 성우. 성우조차 단어마다 따로 끊어 발음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전문 방송인은 우리말 발음에 대해 치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⑪ 옷 입다: '표준 발음법'(제29항 붙임2.)에 예시된 대로,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데, 절음 상태에서 연음하는 이상한 습관들이 있다.

"--- 옷 입는[오딤는] 것도 ---"(99.11.15. MBC TV 극 '날마다 행복해' ㄱ 텔런트. [은님는]이라야 옳다.)

"옷 입는[오딤는] 맛이 다르네!"(99.11.27. ㅍ 양북 TV 광고 ㅂ 텔런트(남). '다르네'는 좋은데 ---.)

"아름아, 옷 입자[오딤자]!"(00.4.23. MBC TV 극 '전원 일기' 아름이 엄마 역의 텔런트)

⑫ 이웃 약국(藥局): "이웃 약국[이운 약국/이우약국]에 ---"(00.10.3. K1TV 뉴스9 ㄱ 기자와 제주 뉴스 ㅈ 앵커. [이운약국]이라야 하는데 끊어서 읽으니 발음이 이상하게 되었다.)

⑬ 일단락(一段落): '일단락'은 사전마다 발음 표기가 다른 실정이다.

	국어연구원	한글학회	KBS	백산	민중	동아	금성	비교(표준 발음법)
일단락	-딸-	-딤-	일딤낙	일딸락/ 일딤낙	-딤낙-/ -딸-	-딸-	-딸-	일딸락

현재의 상황은 방송 종사자들이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표준 발음법'(제20항)에 의거, 당연히 [일딸락]으로 발음해야 한다. '제20항 다만'에 속하는 말도 아닌데, KBS가 [일딤낙]을 표준 발음으로 정한 이유도 모호하거나, 방송에서 이를 지키지도 않는다. 특별한 이유나 규정도 없이 임의로 발음을 달리 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근거

없이 두 가지 발음을 적어 혼란만 주는 사전 또한 고쳐야 한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일따낙]이 더 현실에 맞는 발음이라 생각하지만, '제20항 다만'에 예시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아니므로 [일따락]이 옳다. 만약 대부분의 언중이 [일따낙]이라 한다면 발음법 조항에 넣을 일이다.

"수사는 일단락[일달락]되었다."(99.12.30. K1TV 'KBS 뉴스 라인' 7 앵커, [일따락], 백보를 양보해 [일따낙], 이도저도 아닌 [일단락]이라는 발음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일(一)'과 '단락(段落)'으로 된 단어라 따로따로 발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평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경(敬)음은 품위가 떨어진다는 그릇된 인식 때문이 아닌가 한다.)

"(현대 사태는) 일단락[일달락] 되게 —"(00.5.31. K2TV '뉴스 투데이' B 기자(남))

"— 일단 일단락[일따낙]됐지만 —"(00.7.10. K1TV 뉴스 O 기자)

⑭ **자민련(自民聯)**: '한글 맞춤법'(제11항 붙임3)에는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하고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의 예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연합'의 준말은 본음대로 적어 '자민련'이라야 한다. 그런데 뭐라고 읽어야 바른 발음인가? '표준 발음법'에는 이런 경우의 조항이 따로 없다. '제20항 다만'에 속하는 말도 아니다. 그러므로 굳이 동화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자민련'은, 대부분 [자민련]이라 하지만, [자밀련]이 바른 발음이다. '국제연합'의 준말인 '국련'은, 일반적인 발음 법칙(제19항)에 따라 [궁련]으로 발음한다.

"— 자민련[자밀련] 김○○ — (선거법 위반으로 소환되었다.)"(00.5.1. 18:00 MBC R 뉴스 7 아나운서(여), 모처럼 들어본 바른 발음이었다.)

⑮ **전라(全裸) · 반라(半裸) · 적나라(赤裸裸)**: 당연히 해야 할 동화를 않는 경우도 있다. '전라, 반라, 적나라(하다)'는 우리말의 특성상 '전나, 반나, 적나나'라야 한다고 볼 수 있고,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우리말 二重頭音法則의 특성상 '적나나'가 타당한 표기일 것이다. "더러 '적나라'로 표기한 사전이 있지만 그것은 국어 二重頭音法則을 모르고 잘 못 적은 것이다. 같은 예로, '내내주(來來週)'를 '내래주'라 하면 말이 되는가?"<sup>12)</sup> 하는 지적은 타당하다. 하지만 '적나라'가 '적나나'로 나

은 사전은 거의 없다. 빠른 시일내에 표준어 사정을 보완하는 조치가 선행되고 이에 따라 사전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특성을 지닌 '내내월(來來月)'은 '한글 맞춤법'(제12항 붙임2: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에 따로 예시되어 있다. 현존 사전도 다 '내래월'이 아닌 '내내월(來來月)'이다. 그러나 '적나라'는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적나라'로 적을 이유가 없다. 또 일단 표준어로 사정되었으면 당연히 발음도 여기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적어도 방송에서는.

“— 전라(全裸)[전:나]와 반라(半裸)[반:나]로 —”(00.7.31.18:00 MBC R 뉴스 ㄱ 아나운서(남), [절라]와 [발:라]가 정확한 발음이다. '전나, 반나'로 알고 있는 듯한데, 그나마 장단음도 틀렸다.)

- ㉞ 촌로(村老): “— 촌로[촌노]의 아리랑이 —”(99.11.17. K2TV '전통 체험, 뿌리 깊은 나무' 해설 ㄱ 성우, 장단음은 차치하고, 이 성우는 기본적인 자음접변조차 잘 하지 못한다. 어이없고, 안타깝고, 속상하는 일이다. [출:로]라야 한다.)

“(제주도 애월의) 유수암리 촌로[촌노]—”(00.10.6. K1TV 'VJ 특공대' ㄱ 아나운서(여), 발음이 비교적 정확한 이 아나운서가 이런 기본적인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㉟ 편력(滯歷): “베시의 남성 편력[편녁] —”(80.6.13. TBC TV '전격제로 작전' 남주인공 더빙 성우, [펼:력]이라야 한다. 그러고 보니 '촌로[촌노]'식의 발음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 3) 지나친 동화

'갑니다→[갑미다], 건강(健康)→[경강], 근본적(根本的)→금본적, 양고→[양교]'식의 발음이 적어도 방송에서는 들려선 안 된다(제21항). 발음이 편하다고 해서 틀린 발음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현상은 방송기자 뿐 아니라 텔런트들에서도 많이 보이니 주의를 촉구한다. 그렇다고 그릇된 동화를 의식해서 글자대로 떼어서 발음하는 풍조는 더욱 곤란하다. 가령 '젓먹이[전머기]'를 [점머기]라 하지 않기 위해 [전머기]라 하는 예를 들 수 있다.

12) 주 3), 81쪽(『국어대사전』(수정증보판, 이희승, 1982)에는 '적나라'로 나온다. -이 글에 의함.)

“— 좋아져 갑니다[갑미다].”(98.5.30. K1TV 극 ‘龍의 눈물’ 태종 역의  
○ 델런드)

#### 4) 이름의 동화와 두음법칙

99.8.19. 국민일보, 00.8.17. 동아일보에는 ‘이길여(李吉女)’ 씨 기사가 실려 있다. 표기를 보고 읽으면 [이:기려]이나, 읽을(부를) 때는 [이:길려]라고 한다. 표기와 발음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고유명사인데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니 그렇게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재고할 일이다. ‘길녀’라면 [길려]가 되지만 ‘길여’는 [길려]가 될 수 없다. ‘ㄹ’과 ‘ㅇ’은 동화하여 첨가되는가? 그렇다면 뒤의 한자는 왜 표기하는가? 같은 신문에 ‘이겸노(李謙魯)’ 씨 기사도 있는데, 발음이야 [이:겸노]지만 표기는 ‘이겸로’라야 한다.

지명은 몰라도 개인 이름은 여러 문제가 있다. ‘한글 맞춤법’(제10·11·12항:단어 첫머리에 나오는 한자음 ‘녀, 뇨, 뉴, 니’는 ‘여, 요, 유, 이’로, ‘랴, 려, 례, 료, 류, 리’는 ‘야, 예, 요, 유, 이’로, ‘래, 로, 뢰, 루, 르’는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냥(兩), 년(年), 리(里, 理), 렐, 룰’ 등은 예외이며,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에 따라 두음법칙을 지켜야 하는 글자가 이름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또 그런 조항을 따로 두지도 않았다.

이름에서 가령 ‘운용(雲用(容))’은 맞지만 ‘운룡(雲龍)’은 틀린 것이다. 자신이 어떻게 적느냐에 관계없이, ‘李御擘’ 전장관은 ‘이어령’이라 하면 틀리고 ‘이어영’이라야 맞다. 적어도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도 적는다면, ‘김용용’ 야구 감독, IOC 김운용 위원(신문에서 이렇게 표기함)의 이름은 ‘용’이 ‘龍, 龍, 龍’ 등이 아닐 때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운룡(雲龍)’이 이름일 때 ‘이운룡’을 ‘이운용’이라 하면 그릇된 것이다. 전자는 [울룡]이고 후자는 [우룡]이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니 그 차이는 크다. ‘운룡’이라 쓰고 [운룡]이라 하는 것도 잘못이다. 만약 표기를 고치려 한다면 이름을 한자로 쓰지 말 일이다. 야구 선수 ‘宣銅烈’은 당연히 ‘선동렬’이라야 옳다. IOC ‘김운용’ 위원, 프로 야구 ‘김용룡(김용용)’ 감독은 이름의 한자를 알지 못해서 예로 들지는 못하겠다.

‘人名은 고유명사다’ 하고 말 일이 아니다.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발음도 달라지게 되므로 표기와 발음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성과 이름은 붙여써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영숙(李寧淑)’이 ‘이녕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성과 이름을 각각 단어로 보면, ‘한용운(韓龍雲)’의 ‘龍’은 단어 첫머리에 온 것이므로 ‘한용운’이라야 맞다. 그런데 지금은 성과 이름을 붙여 쓰게 되어 있으니, 이 경우 어찌해야 할지를 좀더 명확하게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름 ‘이은(俐銀)’을 성(金)과 붙여쓸 때 ‘김리은(金俐銀)’이라 하면 발음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단서가 없다면, 성과 이름을 붙여쓰면 한 단어로 당연히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는 당장 겪고 있는 혼란이다.

이름 얘기가 나왔으니 여기에서 姓의 頭音에 대해 잠깐 살피겠다. 지금 ‘진주 李 씨, 문화 柳 씨, 羅 씨’가 “리, 류, 라”로 적고 있고, 姓은 시조를 같이 하는 동계 혈족집단의 명칭으로 고유명사이므로 인정하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현행 규정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일<sup>13)</sup>은 참으로 다행이다. 북한에서는 ‘랭면(冷麪), 리해(理解)’ 같은 말은 물론 성에서도 ‘류미영, 리철진’처럼 두음 법칙을 따르지 않는데 그에 따른 발음은 어찌할 것인가도 숙제이다. 마치 외국어를 읽듯이 이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두음 법칙에 맞추어 적거나 발음할 것인가, 앞으로 풀어야 할 큰 과제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류○○’(방송인, 텔런트) 같은 자막 표기와 발음이 방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새로운 우편 번호가 이(里)(리)별로 ---”(00.4.27. K1TV ‘뉴스라인’ 공동 앵커 스 아나운서(여)) 하는 식의 발음이 들린다. 작은 일이 아니다.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의 연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별고로 재론할 문제이다.

“롯데 진감용(진가봉/진감봉) 선수 —”(00.7.16. MBC R 삼성 대 롯데 야구 중계, ♣ 해설자는 [진가봉/진감봉] 두 가지로, ♣(?) 중계 아나운서는 [감봉]으로 발음한 것은, 이런 혼란을 잘 보여준다. 이름의 漢字를 모르니 여기에서 확인하지는 못하겠다.)

#### 4. 첨가

13) 김용호, “내 사랑 주영씨”, 한국교열기자회, 「말과 글」, VOL. 68(1996. 가을號), 99쪽.



첨가 여부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말도 있다. 가령 '큰일'은, [큰닐]과 [크닐]이 뜻을 달리한다. 전자는 다루는 데 힘이 많이 들고 범위가 넓은 일이고, 후자는 큰 예식이나 잔치를 치르는 일 즉 大事를 뜻한다. 이처럼 음의 첨가 여부는 중요하다.

뒷말이 단독으로 설 수 없는 데도 첨가하는 것은 무지요, 특히 방음인으로서는 직무 유기이다. 잘못된 습관 때문이기도 하며 지역 방언과도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그릇된 첨가에 초점을 맞추어 잘 틀리는 예를 몇 개 들어서 바른 발음을 제시하겠다.

우선 해당 발음법을 보인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너, 뇨, 뉴]로 발음한다.

숨 - 이불[숨:니불]	홀 - 이불[혼니불]	막 - 일[망닐]
삿 - 일[상닐]	맨 - 입[맨닐]	꽃 - 잎[끈닐]
내복 - 약[내:봉낙]	한 - 여름[한너름]	남존 - 여비[남존너비]
신 - 여성[신너성]	색 - 연필[생년필]	직행 - 열차[지캐널차]
늑막 - 염[능망념]	콩 - 옛[콩닐]	담 - 요[담:뇨]
눈 - 요기[눈뇨기]	영업 - 용[영업농]	식용 - 유[시공뉴]
국민 - 윤리[궁민눌리]	밤 - 옷[밤:논]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 - 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 - 야금[야금나금/야그마금]
검열[검:널/거:멸]	올랑 - 올랑[올랑놀랑/올랑올랑]
금융[금능/그몽]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들 - 일[들:릴]	술 - 잎[술립]	설 - 익다[설리따]
물 - 약[물락]	불 - 여우[불려우]	서울 - 역[서울력]
물 - 옛[물려]	휘발 - 유[휘발류]	유들 - 유들[유들류들]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한 일[한닐]	웃 입다[온닙따]	서른여섯[서른너섯]
3 연대[삼년대]	먹은 옛[머근닐]	
할 일[할릴]	잘 입다[잘립따]	스물여섯[스물려섯]

1 연대[일련대] 먹을 옛[머글련]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6·25[유기오] 3·1절[사밀절] 송별-연[송:벼련]

등용 - 문14[등용문]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넷가[내:까/넛:까] 셋길[새:길/쌔:길] 빨랫돌[빨래돌/빨랜돌]

콧등[코똥/꼰똥] 깃발[기빨/긴빨] 대팻밥[대:패땡/대:뽕땡]

햇살[해쌀/헨쌀] 뱃속[배쑥/뽕쑥] 뱃전[배전/뽕전]

고갯짓[고개전/고갯전]

2.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콧날[꼰날 → 꼰날] 아랫니[아랜니 → 아랜니]

뿔마루[뽕마루 → 뽕마루] 뱃머리[뽕머리 → 뽕머리]

3.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배갯잇[배갯닐 → 배갯닐] 깻잎[갯닙 → 갯닙]

나뭇잎[나뭇닙 → 나뭇닙] 도리갯열[도리갯열 → 도리갯열]

뒹뚱[뽕:뽕 → 뽕:뽕]

① 강요(強要): “—강요[강뇨]했는지가 —”(00.9.20. K1TV 뉴스9 시사기자, 왜 'ㄴ' 음을 첨가하는지 모를 일이다. 불필요한 첨가를 하니 자연히 장단음도 틀렸다. [강:요]가 맞다. 이 기자는 우리말의 억양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② 겁(怯)을: ‘값을’을 [가블]이라 하는 오류와 반대로, 까닭 없이 ‘ㅅ’을 첨가 하여 ‘겹을’을 [겹슬]로 발음하는 기현상도 있다. 꽤 오래된 일이다.

“— 잠힐까 봐 겁을[겹슬] 먹고 —”(80.4.26. MBC TV 극 ‘수사 반장’ 반장 역의 ㄷ 탤런트)

“내가 나간달까 봐서 겁을[겹슬] 내 글썽!”(80.6.5. TBC TV 극 ‘취청 거리는 오후’ 공장장의 연인 역 탤런트)

“제가 겁이[겹시] 나네요.”(00.5.29. K1TV ‘아침 마당’ ㄷ 출연자(여))

“너무도 겁이[겹시] 나”(‘날 닮은 너’ 0 가수 노래)

③ 결막염(結膜炎): “결막염[결마점]은 —”(00.8.8. K2TV ‘클릭! 날씨@생활’ ㅎ 리포터(여), [결망님]이라야 한다. 이 리포터의 틀린 발음은 수

14) ‘등-용문’의 잘못된.

- 차 지적했다. '늑막염(肋膜炎)[늑망념]'을 생각해 보라.)
- ④ 경영(經營): "병원의 경영(경녕)이 악화되고 있지만 —"(00.8.21. K1TV 뉴스9 ㄱ 기자)
- ⑤ 구르다: "오토바이는 구르죠(굴르죠)." (80.6.13. TBC TV '전격제로작전' 여주인공 더빙 성우, 이런 예는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나온 것이다.)
- ⑥ 굴욕(屈辱): "— 제시한 저 굴욕적(굴륙적)인 각서는 —"(80.7.20. DBS R 극 '특별수사본부' 해설 성우(남). [구륙적]인이려야 한다.)
- ⑦ 그림요 · -르걸요 · 암요 등: 첨가될 이유가 없는데 첨가해서 발음하는 예인데, '요'는 보조사로 설명어의 어미에 붙어 존대나 주의를 끌게 하는 말이다. '-이오?'를 줄인 말인데, 받침을 연음해서 발음해야 한다. '표준 발음법'에 예시할 필요가 있는 말이다. '제30항 붙임2'의 '다'만'에 추가로 예시하여 '6·25, 3·1절'처럼 'ㄴ(르)'을 첨가하지 않는 말임을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백두산에서 방송한 것은) 저회(스·오 아나운서)가 처음일걸요[걸료]." (00.9.21. K1TV '아침마당'(00.9.10~9.13. 추석 방송분 자료 화면에서 오 아나운서(여)))
- "별요[별:료]?" (00.9.23. MBC TV 극 '전원 일기' 막내 며느리 역의 텔런트, 00.10.2. K1TV 극 '좋은 길 어떡해' 미주 역의 오 텔런트(여))
- ⑧ 기다리다: "— 기다리고[기달리고] 있게." (80.7.5. TBC TV 극 '형사' 오 텔런트, 이런 예("— 치려는[칠려는] 의지, 막으려는[막울려는] 의지가 엮보이는 —"(80.7.2. DBS R 야구 중계 아나운서) 등)는 너무나 많은데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본다.
- ⑨ 날다 · 날아가다: "— 눈앞에 별들이 마구 날아[날라]다닌다 —"(81.5. 27. KBS 라디오 서울 '북한 기행' 진행 ㄱ 성우(남))
- "(바람에) 비닐이 모두 날아가고[날라가고] —"(00.7.21. K1TV 뉴스9 오 기자(남))
- ⑩ 단역(端役): "— 단역[단녁]과 조연으로 출연한 —"(00.10.1.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ㄴ 기자)
- ⑪ 동양(東洋): "동양(동냥) 최대의 석불 —"(00.7.28. K1TV 뉴스 ㄴ 기자, 발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ㄴ'음이 조금 섞여지기는 하지만 또렷이 [동냥]으로 발음하면 안 된다. '동냥[동:냥]'은, 거지가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일을 말한다.)
- ⑫ 동요(動搖): "— 재학생들의 동요[동뇨]가 큼니다." (00.7.23. K1TV '취재 파일 4321' 오기자, 이 기자는 아무 때나 'ㄴ'을 첨가하는 버릇을 빨리 고쳐야 한다. [동:요]라야 한다.)
- ⑬ 등용문(登龍門): [등용문]을 [등농문]이라 하는 경우도 종종 듣

는다. '표준 발음법'(제29항 불임2. 다만)에 'ㄴ(ㄹ)'음을 첨가하지 않는 말로 따로 예시되어 있는 말이다.

- ⑭ 명목(名目)으로: "— 술값 명목으로[명목소로] —"(00.4.29. K1TV 뉴스9 스 공동 앵커(남). 왜 난데없이 '스'을 첨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겹(怯)을[겹슬]'과는 또 달리, 이 경우는 아마 '목'을 '뭉'으로 착각한 탓이 아닌가 한다.)
- ⑮ 명예(名譽): "명예[명네]"(00.7.27. MBC TV '100분 토론' 토론자인 비 변호사(여). 방송 출연자를 선정할 때는 발음을 먼저 본 다음에 전문성을 고려해야 함을 잘 보여준다.)
- ⑯ 목이: "(장사는) 목이[목시] 좋아야 돼요."(00.5.1. MBC R '지금은 라디오 시대' 스 공동 진행자, 개인 습관이겠지만 아마 '목'을 '뭉'으로 착각한 탓일 것이다. 그런데 '겹(怯)이[겹시]'는 무슨 까닭인지 궁금하다.)  
"([미용실은) 목이[목시] 중요하다"(00.6.29. K1TV '아침 마당' 스 공동 진행자(남))
- ⑰ 못 잊다: "오늘의 이 감격을 못 잊을[모디즐] 것 같아요."(99.12.30. MBC TV '99 MBC 연기 대상' 신인상 사회 초 텔런트, (몬니따)라야 한다(제29항 불임2). 3-2)-⑤에서 전술하였다.)
- ⑱ 반열(班列): "골 넣는 골 키퍼 반열[반널]에 —"(00.7.16. MBC TV '뉴스 데스크'의 '스포츠 뉴스' 스 기자, 첨가될 이유가 없으므로 [바널]이라야 한다.)
- ⑲ 백분율(百分率): "한글 맞춤법'의 '제11항 불임1 다만'에 따라,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률'은 '열, 율'로 적는다. '분열, 비율, 전율, 백분율' 등이 그 예인데, 이 중 '백분율'은 [백뽀늘]로 첨가시켜 발음한다('국어연구원', 'KBS', '민중' 등). 여기에 무슨 뚜렷한 이유나 기준이 없어서 참으로 모호하다. 언중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말을 할 수도 있으나, 대단히 무책임한 말이다. 필자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발음 규정을 위한 기준 설정과 그 적용을 지적하기 위해 이 말을 따로 들었다. 「한글학회」에는 발음 표기가 없으니 연음하라는 뜻이겠다.
- ㉑ 병영(兵營): "이대생(梨大生)들의 병영[병녕] 체험은 —"(00.7.5.07:30 K1TV 뉴스 스 기자, 쓸데없는 첨가이다.)
- ㉒ 부르다: "제가 팝송을 잘 부르거든요[블르거드뇨]." (80.6.15. DBS R '유쾌한 응접실' 스 가수)  
"노래를 아주 잘 부른대[블른대]?" (80.7.5. TBC TV '토요일이다 전원 출발' 스 코미디언)  
"한 곡만 부르실[블르실] 수 있겠습니까?" (00.10.15. MBC TV '사랑의

스튜디오' ○ 공동 진행자(남))

㉑ **분열(分裂)**: 대체로 전문 방송인은 잘 하고 있으나, 소위 지식인의 말에서 오류를 많이 본다. 이런 기본적인 발음을 제멋대로 하는 것은 관심과 노력의 부족이다.

"분열[분녘]"(99.12.20. 제주 MBC TV '제주 백년(?)' ㄱ 토론자)

㉒ **불야성(不夜城)**: "갈치잡이로 불야성[불라성]을 이루고 —"(97.11. K1TV 뉴스9 제주 뉴스 ○ 앵커(기자, 남))

㉓ **삼십여 분(三十餘分) · 십여 명(十餘名) 등**: "(채수생) 이백오십여 [-오십녀] 명의 —"(00.7.23. K1TV '취재 파일 4321' ○ 기자, 까닭 없이 동화시키니 자연히 첨가도 되었는데 그냥 연음하면 된다.)  
"삼십여[삼십녀] 분을 헤맨 끝에 —"(00.10.1. MBC TV '뉴스 데스크'의 '카메라 출동' 보도 기자(남))

㉔ **상업용(商業用) · 영업용(營業用)**: "상업용[상업용]"(00.7.20.12:20 MBC R 제주 뉴스 ○ 아나운서(남), [상업농]이라야 옳은 바, '영업용'이 [영업농]인 것과 같다.)

㉕ **선율(旋律)**: "그와 같은 선율[선늘]을 —"(80.5.21(?) KTV '국악의 향기' 해설 ㄱ 교수, [서늘]이라야 옳다.)

"아름다운 선율[선늘]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00.9.24.11:10 K1TV 'KBS 교향악단 연주회' 선전 아나운서(여))

"— 화합의 선율[선늘]을 선보이게 됩니다."(00.10.18. K1TV '뉴스 라인' 성우(목소리 출연, 남))

"(스콜피온스 그룹이) 오늘 저녁 평화의 선율[선늘]을 선보이게 됩니다."(00.10.19.09:50 K1TV 뉴스 ○ 기자(남))

㉖ **송별연(送別宴)**: "송별연[송별련]에서 —"(00.9.10. K1TV 'TV 쇼 진품 명품' 진행 ○ 아나운서, [송:벼련]이라야 한다. '표준 발음법'(제29항 붙임2. 다만)에 'ㄴ(ㄹ)'음을 첨가하지 않는 말로 따로 예시되어 있는 말이다. 수십 년 경력이 부끄럽지 않도록 발음법 공부를 더 하기 바란다.)

㉗ **심야(深夜)**: "(외국 유명 상표 회사의) 심야[심:나] 개업 파티에 —"(00.9.30. SBS TV '나이트 라인' ㄷ 기자, [시야]라야 옳다.)

㉘ **'쌍용'**: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다. 즉, ○+○의 연음값은 ○이라 [쌍용] 소리 같지만 이모음 역행동화로 ㄴ음 첨가 작용이 발동되기 때문에 [쌍농]에 가깝게 소리 난다는 것이다. '쌍용'은 '쌍룡'의 오기라 했지만 소리값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sup>15)</sup>. 그렇다고 해서 [쌍농]은 아니다. 발음 중에 자연스럽게 'ㄴ'음이 조금 나오기는

15) 주 10). 31쪽.

하지만, 어디까지나 [쌍농]은 아니니 적어도 방송인은 [쌍용]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쌍용[쌍농]”(00.7.22. K1TV 뉴스9 주요 뉴스 항목 소개 ㄱ 아나운서(남))

“쌍용[쌍용]”(00.11.2.12:00 K2R 뉴스 ㄴ 아나운서(남), 쓸데없는 음을 첨가하지 않고 제대로 발음하여 반가웠다.)

- ㉔ **알알이**:“(델리웨어 포도가) 알알이[알라리] —”(00.7.17. K1TV ‘6시 내 고향’ 청주=리포터(남), [아라리]이다. 왜 아무 까닭 없이 첨가를 하는가? ‘한 알 한 알마다’를 뜻하는 ‘알알이’가 이상한 말이 되었다.)
- ㉕ **연연(戀戀)**:“작은 인정에 연연[연년]하면 —”(98.5.16. K1TV 극 ‘龍의 눈물’ 태종 역의 ○ 텔런트)  
“(대통령은 총재직에) 연연[연년]하지 말고 —”(00.9.21.12:10 MBC R 뉴스 ㄱ 아나운서, [여:년]이라야 맞다. 쓸데없이 첨가를 하니 자연히 장단음도 틀리게 된다.)
- ㉖ **영양(營養)**:“(향어 백숙은) 영양[영냥]에도 좋고 —”(00.7.17. K1TV ‘6시 내 고향’ ㄱ 리포터)
- ㉗ **운율(韻律)**:“운율[운:늑]은 전혀 상관이 없는 —”(00.7.28. MBC R ‘지금은 라디오 시대’ ㄷ 공동 진행자(여), [우:늑]이라야 한다.)
- ㉘ **육각형(六角型)**:“대나무 살이 정육각형[정유까경]이 —”(00.7.27. K1TV ‘전통 체험 뿌리 깊은 나무’ 해설 ㅎ 성우, [정:뉴까경]이라야 바른 발음이다. 그나마 [-유가경]이 아닌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 ㉙ **이 달 안으로**:“이 달 안으로[이달란으로] 오 씨의 노숙자 생활은 —”(99.1.7. K2TV ‘추적 60분’ ㅎ PD, [이다라느로]라야 한다. 다른 음이 첨가될 까닭이 전혀 없다.)
- ㉚ **일인 이(삼)역(一人(二)三役)**:“그는 일인 삼역[이린 삼녁]의 —”(00.7.4. K1TV ‘피플 세상 속으로’ 해설 ㄱ 아나운서(성우(?)), 뒷 것이 단독으로 못 서니 첨가하면 안 된다. ‘일인 이(삼)역[이린이:역(-사떡)]’이라야 한다.)
- ㉛ **작열(灼熱)**:‘작렬(炸裂)’은 동화 현상으로 [장닐]이 당연하지만, ‘작열(灼熱)’은 [장닐]이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일본의 영향인 듯하다는 의견<sup>16)</sup>도 있으나, 경위야 여하튼 만약 모든 言衆이 첨가를 해서 [장닐]로 발음한다면 조항에 예외적 단어로 명시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아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백산」을 제외한 모든 사전이 두

16) 주 5), 563쪽.

러한 이유 없이 [장닐]을 옳은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백산」은 두 가지 발음을 표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도 모호하다. 「표준 발음법」(제29항)에 보면,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너, 뇨, 뉴]로 발음하라고 한다. 예로 든 '한-여름, 신(新)-여성, 담(糞)-요, 영업-용(用)(괄호 속의 한자는 필자)' 등과 '작열'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작열'은 '작-열'로 나누기 어려운 말이다. 즉, 합성어나 파생어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만약 '열(熱)'이 홀로 설 수 있으니 '성홍열(猩紅熱)[-닐]'처럼 첨가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신열(身熱)[시닐]'이 연음되는 점은 어찌 설명할 것인가? 따라서 들로 나눌 수 없는 말은 당연히 연음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첨가가 되는 예외적인 말이라면 조항에 예로 들어 혼란을 피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국어연구원	한글학회	KBS	백산	민중	동아	금성	비교(표준 발음법)
작렬	장닐	"	"	"	"	"	"	장닐
작열	장닐	"	"	장닐/ 자결	장닐	"	"	자결
신열	===	===	시닐	"	"	===	===	시닐

- ① 전율(戰慄): "--- 전율[전닐]과 감동이 다가옴다."(00.10.25.10:30 SBS TV '조수미 초청 콘서트' 예고 성우(남))
- ② 절약(節約): "정부는 에너지 절약[절략] 위원회를 ---"(80.5.11. TBC TV 'TBC 석간' ㄱ 앵커(남))  
 "일반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절략] 풍조가 강해짐에 따라서 ---"(80.6.7. 21:00 TBC TV 뉴스 ㄴ 앵커(남))  
 "유한한 에너지를 얼마나 절약[절략]해서 ---"(80.7.6.21:30 TBC TV 뉴스 ㄴ 기자(아나운서(?)), 남)  
 "전기가 절약[절략]되고 ---"(80.7. ㄹ 밥술 선전 ㄱ 텔런트)  
 "미국도 에너지를 철저하게 절약[절략]하고 있습니다."(80.7.29.11:20 DBS R '행복의 구름다리' ㄱ 기자, 3분 정도 얘기하며 [절략]을 10여 번이나 강조했다.)  
 "--- 절약[절략]하고 ---"(99.11.3. K1TV 극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ㄱ 텔런트)

“(종이를) 절약[절약]하는 —”(00.7.30. K1TV ‘시사 포커스’ ㅂ 기자, [절약]에 가깝게 발음했다.)

“— 에너지 절약[절약]을 외쳤습니다.”(00.10.14. K1TV 뉴스9 ㅅ 기자(여))

㉑ **줍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주운[주슨] 것이네?”(00.7.8. SBS TV 극 ‘도둑의 딸’(재) 식당 주인 역의 텔런트(여), ‘ㅅ’ 음이 들어간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활용 어미도 엉망이다.)

㉒ **참여(參與)**: “여러분의 참여[참녀]를 —”(99.1.7. K2TV ‘시사 터치 코미디 파일’ 진행 ㄱ 텔런트(여))

㉓ **첫인상(-印象)**: “첫인상[처딘상]”(00.7.22. K1TV 극 ‘좋은 걸 어떡해’ (재) ㄱ 텔런트(여), 00.7.23. K1TV 연속극 ‘좋은 걸 어떡해’ (재) ㅂ 텔런트)에서 보듯이, [처딘상]으로 발음들 하고 있으며, 사전에도 [처딘상]으로 나온다. ‘첫아들[처다들], 첫인사[처딘사]’ 같은 경우다. 여기에서 ‘첫여름[천너름], 첫이레[천니레]’의 발음을 살필 필요가 있다. ‘표준 발음법’(제29항)에 따르면 각각 ‘첫인상[천닌상], 첫여름[천너름], 첫이레[천니레], 첫인사[천닌사]’로 발음해야 한다. 단어마다 뚜렷한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이 개개의 단어를 사정해서 발음해야 한다면 도대체 발음법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조항 따로 말 따로’가 된다. 따라서 조항은 가능한 한 예상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㉔ **촬영(撮影)**: 발음에서 ‘절약, 촬영, 환율, 활약, 활용’ 등은 오래 전부터 잘 틀리는 말로 이제 고질이 된 듯싶다.

“촬영[촬영]과 편집까지 —”(80.6.8.21:20 KTV 뉴스 ㅅ 기자(남))

“— 죽은 현장 촬영[촬영]한 사진야.”(80.7.5. TBC TV ‘형사’ ㅅ 텔런트)

“— 기념 촬영[촬영]도 하시고 —”(80.8.28. DBS R ‘라디오와 이 밤을(?)’ 진행 ㅅ 코미디언)

“촬영[촬영] 나갈 때 —”(94.10.26. K1TV ‘아침마당’ ㅅ 공동 진행자, 출연한 ㅅ 배우는 [촬영]으로 정확히 발음했다.)

“이 장면을 촬영[촬영]한 달북자는—”(98.12.18. MBC TV ‘뉴스 데스크’ ㅅ 특파원)

“(사진(영화)) 촬영[촬영] —”(00.3.30. K2TV ‘시사터치 코미디파일’ ㄱ 코미디언, 00.7.28. K1TV 뉴스9 ㅂ 기자, 00.8.7. K1TV 뉴스9 ㅅ 기자)

“(이 씨는) 조만간 영화 촬영[촬영]을 하고 싶다는 —”(00.8.17. KTV 뉴스 ㅅ 기자)



"(후세인율) 촬영[촬영]할 —"(00.10.17.09:50 K1TV 뉴스 ○ 기자 (남))

㉑ **탈영(脫營)**: "나는 바로 탈영[脫營][탈령]이다."(00.9.18. MBC R '싱글 벙글 쇼' ㄱ 공동 진행자(남))

㉒ **평양(平壤)**: "평양[평양]에서 공동 취재단의 —"(00.8.16. K1TV 뉴스9 ○ 기자)

㉓ **환율(換率)**: "그러나 수출은 환율[환늘] 인상에 힘입어 ---"(80.6.29. 13:00 DBS R 'DBS 뉴스' 아나운서, [화:늘]이 맞다.)

"특히 환율[환늘] 인상으로 환율[환늘]이 십 원 인상되면 —"(97.11.10. 16:50 MBC TV 'MBC 뉴스 센타' 제주 뉴스 아나운서(여))

"환율[환늘]은 미국 달러화의 값 아니겠습니까?"(98.12.21. K1TV '뉴스 라인' ㄴ 기자. '달러(dollar)화'는 '달러화'가 맞는데 별고로 검토하겠다.)

"환율[환늘] 급락의 원인과 대책을 —"(99.1.5. MBC TV '뉴스 데스크' ○ 앵커)

"환율[환늘]이 이처럼 —, 환율[환늘] 하락을 —"(99.1.5. MBC TV '뉴스 데스크' ㅎ 기자. ㄱ 기자는 [화늘]과 [환늘]을 번갈아 발음했다.)

"환율[환늘] 하락과 같은 —"(99.1.6. MBC TV '뉴스 데스크' ㅅ 기자)

"환율[환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 정부는 환율[환늘]이 급락함에 따라 —"(00.1.6.20:00 K2TV 뉴스 ○ 앵커)

"— 환율[화늘] 급락 등을 고려할 때 —"(00.9.6. K1TV '뉴스 네트워크' ○ 공동 앵커(여), 장단음에도 유의 바란다.)

㉔ **활약(活躍)**: "아! 요즘 활약[활략]이 많으시죠?/예- 활약[활략]은 무슨 활약[활략]요?"(80.5.16. MBC TV 극 '홍변호사' ㅎ 텔런트(김 검사 역)와 ㄴ 텔런트(홍 변호사 역))

"— 성악으로 활약[활략]을 하지 않니?"(80.7.5. TBC TV '토요일이다 전원 출발' ○ 코미디언) "더 많은 활약[활략] —"(00.3.30. K2TV '시사터치 코미디파일' ㄱ 개그맨. 이 개그맨은 발음시 쓸데없이 첨가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방송에 출연하려면 좀 노력을 해야 한다.)

"— 중심 타자로 활약[활략]했습니다."(00.5.14. K1TV 뉴스9 '스포츠 뉴스' ㄴ 기자)

"활약[활략]"(00.5.21. K1TV '시사 포커스' ㄴ 기자)

"(검사가 마피아를 소탕하기 위해) 맹활약[猛活躍](맹활략) —"(00.7.17. K1TV '제헌절 기획-법은 아름답고 자유로운 것' 보도 기자(남), [맹:화략]이 옳다.)

㉕ **활용(活用)**: "그 땅을 활용[활롱]하기 위해서 —"(80.6.11.07:20 DBS R 뉴스 보도 기자)

"— 활용[활롱]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릴 계획입니다."(00.5.2. K1TV

뉴스9 제주 뉴스 ㄱ 기자(남), '벌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다.)  
 "(완도의 해수욕장이) 활용[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00.7.27. K1TV  
 뉴스 ㄱ 기자)  
 "(이곳의 불은) 재활용[재활용]됩니다."(00.9.18. K1TV '세계는 지금'  
 ㄱ PD(기자(?)), [재:화통]이 옳다.)  
 "— 컴퓨터 활용[활용] 능력과 —"(00.10.22. MBC TV '뉴스 데  
 스크' ㄴ 기자)

㉔ 특히 '제주어'의 첨가 현상에 대하여: 제주어의 특징 중 하나로 (대개는 지나친 자음접변으로 인한) 음의 첨가가 많은 점을 들 수 있다. '일학년[일랑년], 전:화[電話][전나], 딸아이[딸라이]' 같은 경우다. 사석에서야 오히려 장점이 되겠지만, 적어도 방송에서는 정확한 발음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00.4.7. K1TV '16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지역/후보정책토론회'(서귀포 남제주군)는 제주인들(토론자: ㄱ·ㄱ 논설 위원, ㄱ 편집 부장, ㄱ 총선 연대 팀장, ㄱ 시청자 위원 등)이 모여 토론했기 때문에 제주 발음의 특징을 잘 보여줬다. 적어도 발음에서는 언론계에 있는 출연자도 별로 낮지 않았다. 쓸데없이 음이 첨가된 말로 '견해[견내], 백이십만원[백기십마닐], 폼하[폼마]"(각각 [견:해], [백기십마닐], [폼:하]임) 등을 들 수 있다. 好惡는 차치하고, 적어도 방송에서는 무의미한 첨가를 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백오십 전[백고십전]은 —"(98.5.12. K1TV 뉴스9 제주 뉴스 ㄴ 기자(남))  
 "신선한[신선난]"(99.2.19. K1TV '제주저널' 제주도 투자진흥관)  
 "일행[일랭]을 —"(00.7.22. MBC TV 마감 뉴스 제주=ㅎ 기자)  
 "준엄한[준넘만] 심판이 —"(00.8.1. MBC TV '뉴스 데스크' 제주 뉴스 ㅎ 기자)  
 "(송악산 분화구는) 지질학[지질락]적 가치가 —"(00.8.1. MBC TV '뉴스 데스크' 제주뉴스 ㄴ 앵커(기자))  
 "교통 혼잡을 유발하지[유발라지] 않는 데다 —"(00.8.1. MBC TV '뉴스 데스크' 제주 뉴스 ㄴ 앵커(기자))

### III. 결론-관심을 촉구하며

오래전부터 필자는 방송을 보거나 들으면, 들린 발음과 어휘에 신경이 곤두서고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한 예로 '멋있다(머뎃따), 맛있다(마뎃따)'는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귀가 늘 피곤하였다. 전문 방송인보다 영향이 훨씬 큰 텔런트들은 이러한 혼란을 야기하고 바른 말을 오도하는 데 앞장섰다. "정말 멋있는데(머신는데) ---"(80.5.21 TBC TV 극 '휘청거리는 오후'), "--- 훨씬 맛있는(마신는) 것 같지?"(80.5.21. TBC TV 극 '안개의 성'), "--- 아주 멋있는(머신는) 남자를 만나 ---"(80.5.25. MBC TV '웃으면 복이 와요'), "맛있는(마신는) 것 많이 먹고 ---"(80.6.15. DBS R '박근형입니다') 등 수없이 많이 들 수 있다. 1988년 이후 두 가지 발음이 다 인정된 것은(제15항) 현실음을 반영한 것이라 보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같은 경우로 [뜨시따]와 [뜨디따]가 혼용되는 '뜻있다'는 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지 기준이 모호하다. 모음 '의'의 발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예)를 허용한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현행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항). 그런데 지금까지 본 대로, '표준 발음법'에 치밀하지 못한 점이 적지 않고 일관성이 부족해 혼란을 야기하는 점도 많다. 개개의 단어를 사정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거니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 조항을 좀더 자세하게 보정하고 예시 단어도 보완하여 논란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바람직하기는 '표준 발음법'만 충분히 공부하면 발음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두꺼운 해설서를 보고도 헛갈리는 실정이나 일차적으로 발음법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점들은 '한글 맞춤법'에도 해당된다. 혹자는 개개인의 공부 부족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교열 기자 여덟 달만에 깨친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국어의 체계가 어렵다는 것이다. --- 지금은 한술 더 뜨고 있다<sup>17)</sup>."는 탄식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발음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우리말글이 어려운 것은, 국어의 체계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허술한 어문 규정과 권위 있는 사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비표준어로 든('표준어 규정' 제14항) '온가지'가 한쪽에서는, 오해되기 쉽게도, 본디말로

17) 방성철, "외래어 담배, 외래어 고추장", 「말과 글」(한국교열기자회), VOL. 68 (1996. 가을호), 83쪽.

예시되기도(‘한글 맞춤법’ 제32항) 하였다<sup>18)</sup>. 여기에 언론 매체 종사자와 지식인의 무관심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언어란 남들 쓰는 대로 따라 해야 하는 것이니, 사소한(?) 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식의, 지극히 표피적인 사고가 지식인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 나라에는 한국어 학자·교사는 많아도, 현실 생활국어(話言·Parole)의 옳고 타당한 당위성 定立을 수호하는 양식을 갖춘 언어학자가 없<sup>19)</sup>”다는 지적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말글의 길잡이라는 사명감을 지니고 바른 우리말글을 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제작 뿐 아니라 보도까지 하는 PD와 방송 기자는 특히 늘 우리말에 관심을 가지고 틀린 부분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나운서들도 정확한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우리말글의 길잡이인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명감을 지니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제작 뿐 아니라 보도까지 하는 PD와 방송 기자는 특히 늘 우리말에 관심을 가지고 틀린 부분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나운서들도 정확한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드라마 PD는 자신의 노력이나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출연자의 발음이 틀렸을 때 어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장면을 다시 촬영해야 한다는 바람이다. 무분별한, 연예인들의 이른바 ‘토크 쇼’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구성 작가 뿐 아니라 드라마 작가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원고를 읽는 해설자(성우, 아나운서 등)나 극에 출연한 텔런트의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들에 대해 지속적인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리포터를 비롯한 출연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비 때문인지 전문 방송인보다 리포터를 많이 쓰는 풍조도 바뀌어야 한다. 언어 훈련을 받지 않은 연예인은 말할 나위도 없다. BBC 발음국은 출연자들의 선정에도 관여를 한다고 들었다. 방송 출연자는 바른 발음과 정확한 어휘를 구사하도록 노력해

18) 1994.12.26. ‘국어심의위원회(한글분과위원회)’에서 제32항의 ‘은갓, 은갓’의 용례를 지웠다(변은환, “〈말글연〉의 가을 맞이-말과 글 연구회 보고서(III)-”, 한국교열기자회, 「말과 글」, VOL. 68(1996. 가을號), 72쪽). 그러나 최근에 진행된 국어사전에도 부록으로 나와 있는 ‘한글 맞춤법’은 이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

19) 徐康和, ‘수상 소감’(제9회 韓國語文賞), 한국교열기자회, 「말과 글」 VOL.73 (1997.겨울號), 58쪽.

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당연히 출연을 삼가야 한다.

우리말에 관심이 없고 규준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작금의 언어 생활을 보이기 위해, 이 글에서는 번거롭지만 구체적인 실례를 들었다.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필자 사정으로 검토하지 못해 아쉽다. 오랫동안 주의 깊게 방송을 들은(본) 필자의 결론은, 우리말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틀린 발음을 이 글에서 지적한 바는 있지만, 그나마 비교적 발음이 정확한 방송인을 몇 명 볼 수 있어서 반가웠다. ㄱ(남)·ㅂ(여)·ㅇ(여)(이상 KBS)·ㄱ(남)(MBC R) 아나운서, ㄱ PD(남)(00.8.1. MBC TV 'PD 수첩'), ㄱ 아나운서(여)(00.8.1. K1TV 제주 뉴스), ㄱ 기자(남)(00.8.1. MBC TV '뉴스 데스크' 제주 뉴스), ㄱ 아나운서(여)(00.8.2. K1TV 제주 뉴스), ㅎ 아나운서(여)(00.10.6. K1TV 뉴스9) 등을 들 수 있겠다. ㅎ 짧은 소리를 하는 연예인도 많지만, ㄱ(여)·ㅇ(남)·ㅈ(여)·ㅈ(여)·ㅎ(남) 같은 텔런트는 비교적 또렷하고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였다.

이 글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강조할 점을 다시 정리한다.

1. 방송인들은 겹자음의 발음, 동화, 첨가 등을 많이 틀렸는데, 특히 이중 모음과 '半開(閉)母音'의 발음에 무지하였다. 이는 방송인의 기본 자질로 재교육이 절실한 부분이다. 방송인의 자질 또는 자격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2. 격음화를 제대로 하지 않는 말버릇은 바로 고쳐야 한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어린이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할 때,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바른 발음이 더욱 절실하다. 어린이 프로그램 출연자를 엄정한 발음 심사를 거쳐 선정해야 하고 제작 관련자 모두 특별한 노력과 사명감을 지녀야 한다.

4. 우리 발음법이 일관되지 못하고 모호한 데 더하여, 민율만한 표준 발음 사전이 없는 점은 결정적인 결함이다. 권위 있는 발음 사전의 출간이 시급하다. 한 예로, '연잇다(連-)'는, [연닐따](「국어연구원」, 「KBS」)와 [여닐따](「한글학회」(발음 표기 없음), 「민중」)가 사전마다 다르게 나오는 실정이다. 사전의 발음 표기는 번거롭더라도 모든 글자를 다

적어야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경향으로 발음이 어렵지 않은 경우'('한글학회') 같은 원칙은 혼란을 가중시킨다. '몰인격'을 [-린-]이라 하면 '격'은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옳은지 모호하다. '일단락'을 [-탄-]이라 표기했으니 [일탄락]으로 발음하란 말인가? '눈익다'를 [-닉-]이라 하면 [눈닉다]인가 [눈닉따]인가? '힘없다'를 [-업-]이라 하면 [히업다]로 읽으란 말인데, 정확한 발음은 [히업따]이다. 순수히 연음되는 경우('국어연구원')도 표기해 주는 것이 좋다. '청산리'에 발음 표기가 없으면 [청살리]인지 [청산리]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글자와 다른 발음을 적는다는 원칙이 있어도 자연히 경음이 되는 글자를 표기하지 않은 말도 있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충분히 공감하리라 믿는다. 발음 규정의 허점에 대해서는 별고로 논하겠다.

5.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방송 종사자와 방송 출연자의 우리말글에 대한 인식 전환과 관심이다. 방송 기자, PD, 리포터, 연예인, 전문가(이들때면 토론 프로그램의 출연자) 등을 선발하고 출연시킬 때, 카메라 테스트(camera test)보다는 정확한 발음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 되고, 인사고과나 출연료에도 이 점을 반영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인은 방송 원고에 미리 고저 장단음을 비롯한 정확한 발음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 방송에서는 억양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연스럽지 않은 억양이 너무 많이 들린다. 고저장단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하다 고밖에 말할 수 없다. 바른 우리말글을 쓸 줄 모르면서 방송을 한다는 것은 (시)청자를 모욕하는 일이요, 자기 직업에 대한 모독이다. 나아가, 공직에 취임하는 사람도 반드시 언어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바른 우리말을 위해서는 소위 지식인과 언론 종사자의 각성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특히 '---라고' 같은 이상한 말버릇은 시급히 고쳐야 한다("언어란 --- 전달 체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99.1.10. EBS TV 한국방송대학교 국어학 강의 교수(여)). '-시키다'와 함께 우리말을 파괴하는 대표적 현상인데, 들을 때마다 머리끝이 곤두설 정도로 충격을 받는 말이다. 하긴 국문(어)학 교수도 "---라고"가 입에 붙은 판이니 누굴 탓하라? '基盤하다, (내가) 기쁜 것 같

다, 너무 (예쁘다), (한국인이 미국으로) 들어가다, --- 라고, (물을) 먹다, 民草, 바라지고(望) 있다, 바탕하다, 보다 (높이), 보아지다, 本人, 部落, 소개시키다, ---에 있어서의, 女性스럽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있음으로 해서, 자리매김하다, 저희 나라, 전향적, (최대한으로) 줄이다, 지속 가능한, (외국과) 틀리다, ---하는 데 있어서, ---함으로 인해서, (도로) 확·포장' 같은, 지식인(방송인)의 어색한 말투는 얼른 버려야 한다.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심지어, 심지어 '日本스럽다'("일본스러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00.4.21.K1TV '취재 파일 4321' ○ 기자)에 이르러서라!

오랫동안 조사해서 힘들여 쓴 글이므로, 이 글에서 적시한 구체적인 용례는 우리말글 사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글의 성격상, 비교적 정확한 발음을 구사한 경우를 치켜세우지 못해 아쉽다. 우리말의 연음, 경음화, 고저, 장단, 억양, 속도, 외래어, 외(국)래어+우리말, 잘못된 어휘 사용에 따른 발음상의 문제 등과 발음의 혼란에 대한 대책 등은 별고에서 검토하겠다.

바른 생각은 바른 언어 생활에서 나온다. 이를 선도할 사람은 언론 종사자들이다. 따라서 필자는 계속해서 방송과 신문의 문장 등 언론 매체의 우리말글 오용에 대해 논하겠다. 나아가 일반인에게 영향이 지대한 대중 문화의 우리말글 오용도 검토하겠다.

첨언하면, 일선에서 학생을 직접 대하는 초·중·고 교사의 우리말글 사용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니 교사의 책임 또한 크다. 이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도 당부한다.

올바른 말글 생활은 올바른 삶의 출발점이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국어대사전」, (주)두산 동아, 1999.  
 국어국문학회,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0.  
 이은정, 「우리말 발음사전」, 백산출판사, 1992.  
 — 편집국 편,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 편집국 편, 「뉴에이스 국어사전」(혁신판), 금성출판사, 1995.

- 편집국 편, 「새 국어사전」(개정판 3쇄), 동아출판사, 1996.
- 편집국 편, 「새 국어사전」(제4판 1쇄), (주)두산 동아, 2000.
- 편집국 편, 「옛센스 國語辭典」(수정판 제1쇄), 민중서림, 1991.
- 한국방송공사(KBS), 「표준 한국어발음대사전」, 어문각, 1993.
-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1.
- 한글학회, 「한국말이름큰사전」, 1991.
- 김용호, “내 사랑 주영씨”, 한국교열기자회, 「말과 글」, VOL. 68(1996. 가을號).
- 김정수, “우리네 말글살이의 현실(2)”, 한글학회, 「한글 새소식」, 333호(2000.5.).
- 김청구, “ㄹ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ㄴ’ 받침으로 끝난 말에 붙는 경우의 발음”, 한글학회, 「한글 새소식」, 227호(1991.7.).
- 박갑수, 「우리말 바로 써야 한다 1」, 집문당, 1996.
- 방성철, “외래어 담배, 외래어 고추장”, 한국교열기자회, 「말과 글」, VOL.68(1996. 가을號).
- 변은환, “〈말글연〉의 가을 맞이-말과 글 연구회 보고서(III)-”, 한국교열기자회, 「말과 글」, VOL. 68(1996. 가을號).
- 徐康和, “철음법칙과 ‘ㄴ’음 덧나기-KBS는 잘못된 발음을 퍼뜨리고 있다”, 한국교열기자회, 「말과 글」, VOL.72(1997.가을號).
- , ‘수상 소감’(제9회 韓國語文賞), 한국교열기자회, 「말과 글」, VOL.73(1997.겨울號).
- 송철의, “표준 발음법”, 문화관광부, 「우리말 바로 알기」, 1998.
- 안희재, ‘독자투고’(00.7.21. 중앙일보)
- 유만근, “우리 나라 방송 언어 발음 문제”, 국립국어연구원, 「새 국어생활」 5권 4호(1995. 겨울).
- , “방송언어 발음문제-97 가을 KBS뉴스를 듣고-”, 한국교열기자회, 「말과 글」, VOL.73(1997. 겨울號).
- 하희주, 「바른 말 바른 글」, 을지출판공사, 1990.

•